

四二七九年四月二十二日第三種郵便物認可

소학생

4월치



石叻書



아협 발행

★ 77호 ★

사진 세계 일주

① 중국



350616



(1) 변화한 상해 부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자동차 마차 인력거 수레가 홍수처럼 흐르는 변화한 상해는, 비단 중국의 문화 도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상의 중심 도시며 동양 유일의 무역도시입니다.

(2) 한가로이 앉아있는 중국 어린이

여러 어린이들이 정다울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튼튼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의 중국을 짊어지고 나갈 그들이, 더 영리하고 똑똑하게 보이지요.



(3) 물 위에 사는 사람들

중국 남쪽 광둥(廣東)에 있는 주강(珠江) 위 작은 배에서 살림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담민(蛋民)이라 불리워 육지 사람과는 몸가짐 얼굴 모양도 달르며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어업이나 뱃사공노릇을 하여 살아 나간다고 합니다.

원본페이지 누락

소학생

4283년 4월 1일 발행

4월치 77 호

차례

☆창경원의 동물들정 순일(26)

☆야구와 소학생.....이 영민(10)

동요•클발에놀때는.....권 태웅(7)

동요•설집 아이.....한 인현(38)

악보•봄비.....윤 석중•윤 극영(24)

동극•길담이의꿈.....전 우촌(43)

동화•나그네구름.....등 원(49)

베너스의 상인.....세익스피어(4)

이야기•피 보.....(39)

○꽃을 나누면.....진 환(25)

○의교사절 누가먼저...조 용만(22)

○재 공 부.....윤 대영(29)

○우리등무등서집... 박 영중(40)

연재 채석장의 소년...엄 상섭(14)

소설 이름없는 별들...정 인택(33)

아협 상타기작문 • 동요모집(31)

☆사진 세계 일주①(중국).....(51)

☆세계 명작 삽화집 ①.....(55)

만화•도술범사.....김 의환(53)

만화•장난꾸러기.....김 용환(32)

만화•교마비행사.....김 상수(36)

만화•강아지목욕(2)

☆상타기 문제와 발표.....(32)

소년 상식 문답.....(45)

척척박사.....(19) 짹짹박사.....(52)

소학생클럽 • 만물고나서.....(54)

★그림 그리신 분★

정 현웅 • 김 규택 • 조 병더
임 동은 • 김 의환 • 최 수섭
(결장 • 정 현웅)



☆ 이달의 메모 ☆

4월 4일 ...정 몽주 선생이 개성 전죽교에서 세상을 떠나시다. (서기 1392년)

4월 5일 ...청명(淸明), 식목일(植木日)

4월 6일 ...한식(寒食)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남. (서기 1592년)

4월 21일 ...곡우(穀雨)

4월 23일 ...세계적 문호, 세익스피어가 영국에서 이 날에 나서 (서기 1564년) 같은 날 세상을 떠남. (서기 1616)

4월 24일 ...이충무공이 나오신 날. (李忠武公誕日) (서기 1545년)

주위대한 세계적 문호

윌리엄·셰익스피어

4월23일은 생일이자 죽은 날



이탈은, 세계에 으뜸가는 시인이요, 극작가인 윌리엄·셰익스피어가 이 세상에 낳고, 또 죽은 달입니다. 그는 서기 1564년 4월 23일 잉글랜드의 스트레이트포드·폰·에이본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나서, 1616년 4월 23

베니스의 상인

(윌리엄·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작은돌 꾸밈·김 의환 그림

(1)

베니스의 시내는, 돌을 깔지 않았으며, 마차나 수레가 다니지 않았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베니스 시가는 모두 물 위에 세워진 때문입니다. 언제나 푸른 하늘, 언제나 밝은 햇빛, 푸른 바다에 싸인 아름다운 베니스 시가였읍니다. 폰도라라는 장난감 같은 배가 손님을 태우고 물 위를 고요히 다니는 그런 시가였읍니다.

아주 오랜 옛이야기입니다. 이 베니스에 안토니오라는 젊은 상인이 살았읍니다. 그는 배를 많이 가지고 먼 외국과 무역을 하는 부자인데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읍니다. ●

안토니오의 친구에 बाट사니오

라는 젊은 군인이 있었읍니다. 이 बाट사니오는 몹시 가난하였읍니다.

그런데 बाट사니오는 베니스에서 좀 떨어진 베르몬트라는 곳에 사는 포오샤라는 처녀와 혼인하고 싶었으나, 워낙 가난해서 거기까지 갈 노자도 없었읍니다. 그래서 가장 정다운 친구 안토니오를 찾아가 노자를 꾸어달라 하였읍니다. 안토니오는 서슴지 않고 말했읍니다.

“어렵지 않으니. 지금 가진 돈은 없으나 외국에 가 있는 내 배가 돌아오기만 하면 돈이 들어올 테니까 어더 가서 꾸어다 주지. 내가 꾸기는 쉬우니까.”

(2)

베니스에 샤이록이라는 유대

사람이 살고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웅색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고는 엄청난 이자를 받아서 배를 채우는, 잔인하고 무도한 고리대금업자였읍니다.

안토니오는 늘 이 샤이록의 몹쓸 행위를 나무라고, 또 타이르기도 하였읍니다. 그는, 샤이록은 그 말을 옳게 알기는서래, 도리어 이 때문에 안토니오를 괴롭히게 여기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बाट사니오는 하필 이 샤이록에게 돈을 꾸우러 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많은 돈을 낼 사람은 샤이록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샤이록은 돈 꾸우러 온 사정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안토니오가 보증을 선다면 틀림 없으니까 꾸어드리지요. 이자는 한 푼도 일 없읍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돈을 약속한 날 갚지 않으면, 안토니오의 몸 아무거나, 좋으니 살 한 근을 빼어준다는 증서를 써준다면 당장에라도 돈을 내 드리겠읍니다.”

날, 즉 생일날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3 세 때에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
세 돌아갔기 때문에 학교를 중도에서 그만 두고,
집안 일을 돕다가, 19 세에 장가 들고서, 이듬해
에 잉글랜드 수도 런던에 올라갔습니다. 23 세 때
에는 극장에 취직하여 희곡 (연극 각본)을 쓰기
도 하고, 또 스스로 배우가 되어 무대에 오르기
도 했던 것입니다. 이 동안에 셰익스피어가 지어
낸 각본이 35 가지가 되며, 시가 150 편이 넘는데

모두 남이 흉내 못낼 걸작을 발표한 것입니다. 오
늘날까지 영문학하면 우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첫손에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작품은, 반드시 다음에 여러분이 읽을 기
회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대비극
(네 가지 비극)이라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
에트”, “막베스”, “오세로”는 가장 유명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개하는 “베니스의 상인”도 물론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림은 월리엄 셰익스피어)

“그건 안 될 말요.”

बाट사니오는 얼굴을 붉히고 그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안토니오가 이 말을
듣고,

“엄혀 말게. 돈 값을 날보다
한 나이나 먼저 내 배가 돌아
올 때까지 그런 허튼 증서
가 아무 소용 없게 될 겠
세. 자, 어서 그 증서를 얻
어오게.”

बाट사니오는 장가를 못 가
면 못 갔지 그렇게 품서리
쳐지는 증서를 쓰고 돈을 꾸
기는 싫다 하였으나, 하도 안
토니오가 장담을 하고 권하
니까 못 이겨 샤이록에게 돈
을 꾸어 가지고 갔습니다.

(3)

포오사라는 색씨는 무척 부유
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이 색
씨가 혼인할 나이가 되니까 여
기 저기서 장가 가겠다는 신랑
감이 많이 나오고, 또 통혼이 많
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개
는 색씨가 마음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재산기 탐이 나서 혼인
가자는 편이 많았으므로, 포오

사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
상자 세 개를 남기고 떠났습니
다.

그것은 금상자와 은상자와 그
리고 납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
습니다.



“이것을 고른 이는 많은 사람
이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

이것은 금상자에 적힌 글이
고,

“이것을 고른 이는 그 신분
에 적당한 것을 얻으리라.”

이것은 은상자에 적힌 글이
고,

“이것을 고르는 이는 가진 것
모두를 바치지 아니하지 못하
리라.”

이것은 납상자에 적힌 글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상자 가운데 어느 한 상자 속에
포오사를 그린 그림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오사의
그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여
는 사람이 포오사에게 장가들
수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상자
들에서 한 상자를 골라 열어
보았으나 아직도 그림을 찾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량이
면, 한 번은 키가 커다란 인
프리카의 왕자가 와서 상자들
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려
면 돈 많고 예쁜 포오사를 쫓
히고 이 세상에 또 무엇이 있
다는 말인가.”

하고 왕자는 냉큼 금상자를 열
었습니다. 열고 보니 그 속에
는 사람의 해골이 들어있고, 글
을 적은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
다.

“빛나는 것은 모두 돈이 아니

다. 돌아가라 그녀는 적당한
신랑이 아니다.”

라고 씩여 있었을니다.

대개 보며는 금과 은에는 손
을 내어도 납상자는 거들떠보지
도 않았을니다.

이런 즈음에 밧사니오가 청
혼하러 왔습니다. 포오샤는 전
부터 밧사니오를 존경하였던 터
이므로, 밧사니오가 만약에 그
림이 없는 상 열면 어떻게
하나 하고 펴 근심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밧사니오에게 넘지
시 가르쳐 줄 그런 정직하지 못
한 포오샤는 아니었습니다.

밧사니오는 처음에 금과 은상
자를 번갈아 보더니만,

“거죽이 훌륭한 것은 대개는
속에 추한 것이 들어 있는 법
이외다. 나는 이 납상자를 열
겠오, 여기 쓰인 것처럼 내가
신랑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리니.”

하고 납상자를 여니까, 과연
그 속에는 아름다운 포오샤를
그런 그림과, 그리고 비단이 들
어 있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
니다.

“거죽만 보고 고르지 않는 사
람이야말로 항상 좋은 운을
잡으리니, 그대 이미 좋은 운
을 잡았도다.”

하였습니다. 밧사니오와 포오
샤, 그들은 곧 즐거운 혼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4)

그런데 마침 그때였습니다.

베니스에 있는 안토니오부터
뜻하지 않은 놀라운 전갈이 밧

사니오에게 다달았던 것입니다.
즐거움에 가득 찼던 밧사니오에
게는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친
거나 다름이 없는 불길한 소식이
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배들은 물건을 잔
득 싣고 바다를 건너다가 동당
을 만나 그만 파선하여 모조리
가라앉기 때문에 안토니오는 풀
썩 망하여 한 푼 없는 가난방이
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인 고리대금업자 샤이룩은 옳다
구나 하고 좋아하였습니다.

“옳지 그놈을 인제 경쳐놓을
때가 되었다. 여러 사람 앞에
서 나를 욕 퇴었겠다. 어디 이
놈 보자!”

하고 그는 곧 베니스를 다스
리는 공작(公爵)의 집을 찾아갔
습니다. 그리고 밧사니오가 돈
을 꾸우려 왔을 때에 어떠한
하였다는 얘기를 다 고해 바쳤
습니다.

증서를 들여다본 공작은 부드
러운 소리로 샤이룩에게 말하였
습니다.

“증서가 있는 이상 안토니
오의 살을 빼지 말할 수는 없네
그러나 샤이룩, 설마 그대
그런 잔인한 것을 하려는
은 아니겠지?”

“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
간 돈을 기일 안에 갚지 않
이상, 저는 꼭 증서에
는 대로 안토니오의 살 한
을 빼어 가져야겠습니다.
제 와서 스무 갑질 돈을 갖
준대도 저는 꼭 안토니오
살 한 근을 빼어야겠습니다
하고 끝끝내 버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도리가
게 되었습니다.

“.....나는 샤이룩에게 살
근을 떼어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나 죽기 전에 자네와
번만 만났으면 원이 없겠네.
안토니오의 편지는 그런 말
서 끝을 막았습니다.

밧사니오는 그만 일이 빠져
지고 곧 베른몬트를 떠나 베
스토 향하였습니다.

“돈이라면 우리 집에 얼마



지 있습니다. 샤이룩한테서
꾸운 돈의 몇 갑절이든 몇 십
갑절이든 내고서 그냥반의 목
숨을 건지세요.”

라고 밋사니오의 아내 포오샤가
말했읍니다.

(5)

안토니오는 벌써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죄로 옥에 갇혀 있었
읍니다. 그리고 가끔 샤이룩이
그저 있나 없나를 보러 왔읍니
다.

밋사니오가 급히 다달았을 때
에 베니스 재판소에서는 안토니
오와 샤이룩의 재판이 벌어졌읍
니다.

재판정에서 안토니오는 한 마
디도 변명을 하려 들지 않았읍
니다.

“나는 샤이룩에게서 돈을 꾸
었을 때, 만약에 약속한 날까
지 돈을 갚지 못하면 살 한근
을 준다고 단단히 약속하였읍
니다. 지금 와서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겠지요. 우리들
베니스의 상인들은 신용이 목
숨입니다.”

이 때에 재판장은 샤이룩에게
정하듯 말하엿읍니다.

“어떤가 샤이룩, 그런 동에
닿지 않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풀어버리면 어때? 응?”

“온 천만의 밑습입죠. 저는 안
토니오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
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바랄
뿐이올시다.”

라고 샤이룩은 막무가내였읍니
다.
망칠하던 밋사니오가 초소환

동요 풀밭에 놀때는 권래응

풀밭에 놀때는

풀밭이 재밋고

뽕뽕 똑똑 찾아 뽕기

내잎 달린 크로바 찾아내기

모래밭에 놀때는

모래밭이 재밋고

두껍이 집짓기 끈우 묻기

맨발 벗고 찌름하기 재주 넘기

돌밭에 놀때는

돌밭이 재밋고

공깃돌 비삿돌 골라 갖기

장독대에 고여놀 예쁜돌 찾기.]



에 못 견디어,

“자기가 싫어한다고 죽여도
좋다는 말인가?”

하고 악을 썼읍니다. 샤이룩은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재판장각하! 어서 공정한
재판을 내려 주십시오.”

합니다. 밋사니오는 다시 소리
를 높여,

“네가 안토니오에게 꾸어준
돈 갑절을 이 자리에서 내놓
겠으니, 그 증서를 이리 내

라!”

하엿읍니다마는 샤이룩은,

“갑절은커녕 5천 배 6천 배
라도 안토니오의 살피는 바꿀
수 없어!”

이 때에 재판장은 다시 말했
읍니다.

“만약에 네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너도 남에게 인정을
배풀어야 한다.”

“인정요? 인정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배



니스의 법률에 좇아서 공정한 재판이 내리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리하여 인제는 별 도리 없기, 베니스의 엄격한 법률에 좇아서 안토니오의 몸을 샐이룩에게 내주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샐이룩은 기다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이때입니다. 한 사람이 재판정에 들어오더니 재판장에게 편지 한 장을 전하였습니다. 재판장인 공작은 일찍부터 이 어려운 재판을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대하여 어느 유명한 법률가에게 물어보았던 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편지를 보니까 자기는 병으로 못 가고 그대신 제자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젊더 젊고 곱게 생긴 법률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작의 안동으로 재판장 자리에 앉자 앞으막한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샐이룩, 그대는 다시 한번 안토니오에게 인정을 베풀 생각

이 없겠는가?”

“천만의 말씀입죠.”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지!”

“일년 삼백 예순 날 생각한대야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법률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토니오, 너는 베니스의 법률에 좇아서 샐이룩에게 살한 근을 주어야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 샐이룩은 춤을 추 듯 좇아서 날뛰었습니다.

“아아 참 고마운 판결이십니다. 자 안토니오야 가슴을 헤쳐라.”

“샐이룩, 그대는 고기 한 근을 달을 저울을 준비했는가?”

“예, 가지고 오고 밑굽쇼.”

“그러면 이번엔 안토니오, 그대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안토니오는 밧사니오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밧사니오, 나는 자네를 사랑

하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이 조금도 괴롭지 않으니 조금도 어찌 생각지 말게.”

하고 썩썩하게 말하였습니다.

샐이룩은 그런 것이 다 듣기 싫다는 듯이 막우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잠간!”

하고 젊은 재판관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샐이룩, 네가 그 칼을 안토니오의 가슴에 찌르기 전에 한 마디 다져놓을 말이 있다. 다른게 아니라, 이 증서에는 살한 근을 자유로 벤다는 말은 있어도 피는 한 방울도 네게 준다고는 써 있지 않다. 알겠나? 그러니 너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안토니오의 살을 베어라. 만약에 피를 흘리게 했다가는 베니스의 법률은 네 재산을 모조리 몰수한다. 자아 어서 살을 베어!

이 때에 조용했던 재판정에서 갑자기,

“오오, 영특하신 재판관!”

하는 소리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샐이룩은 그만 얼이 빠졌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살을 피를 안 흘리고 베어낼 수 있겠습니까?

샐이룩은 흥분된 얼굴로,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제 안토니오에게 빌려준 돈을 굶을 받고 그만두지요.”

“그럼 필요가 없다. 너는 다만 안 흘린다면 당당히 안토니오의 살을 한 근 가질 권

가 있다.”

“그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돈만 받고 고만 두지요.”

“안 돼! 너는 6천 배의 돈을 준대도 싫다고 그랬지? 자아, 어서 증서 대로 살을 빼어!”

“그럼 전 돈은 일없습니다.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샤이록이 도망가려 하였으나 젊은 재판관은, 소리를 크게 하여 말하였습니다.

“계 있거라, 샤이록. 이제는 네가 재판 받을 차례야. 베니스의 법률은 남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자에게는 누구나 죽음의 형벌을 주고, 그리고 그 재산은 전부 빼앗기로 되었다. 너는 눈명히 안토니오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것이니까 마땅히 법률에 좇아서 죽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마음을 고친다면 목숨만은 살게 할 테니, 공작님께 애원해 봐라!”

이때에 공작이 말을 하였습

니다.

“너는 안토니오에게 눈꼽만큼도 인정을 쓰지 않았으나, 나는 너를 살리겠다. 네 목숨은 특별히 건져주고, 네 재산을 남은 베니스의 시민과 안토니오에게 바치는 게 어떻냐?” 샤이록은 울상이 되어서 말하였습니다.

“목숨을 차라리 죽어줍쇼. 목숨보다 더한 재산을 빼앗기고 살아서 뭘합니까?” 하고 악을 썼습니다.

마침내 안토니오의 청으로, 샤이록의 재산은 모두 그의 딸 시카에게 그자리에서 상속되고, 이 아슬아슬한 재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특한 재판장은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बाट사니오의 아내 포오샤였습니다. 포오샤는, 재판관의 옷을 얻어 입고 들어가서, 그런 통쾌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자 बाट사니오가, “재판관이시어,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하고 애원하 듯 말하였습니다. 한참 생각 끝에 포오샤는, बाट사니오에게,

“당신께서 끼고 있는 그 반지를 내게 준다면……”

하였습니다. 아아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 포오샤에게 선물로 받은 반지가 아닙니까?

“이 반지보다 더 값나가는 반지를 드리지요.”

“예, 나는 무엇보다도 그 반지가 갖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으신 모양이니 고만 두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बाट사니오는 성큼 반지를 빼어서 재판관에게 바치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중한 물건입니다마는, 제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는다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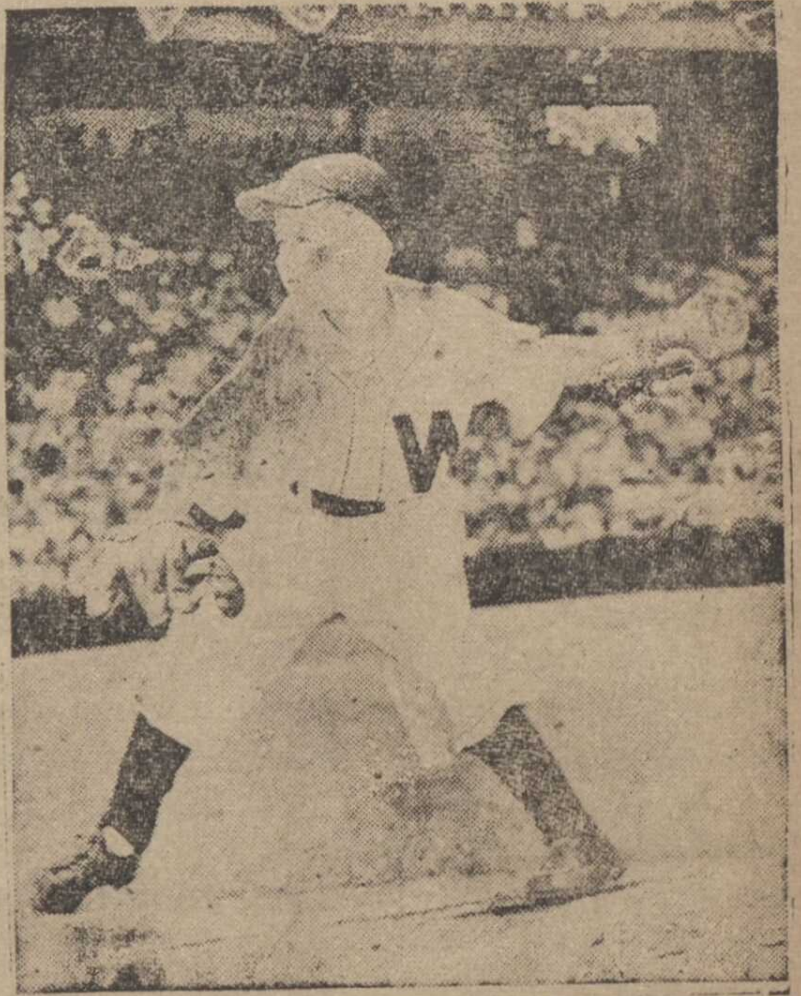
하자, 재판관은 마지 못해 하면서 그 반지를 받았습다. 그리고 그는 곧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집에 돌아온 बाट사니오가 재판 이야기를 전부 하고 나서, 젊은 재판관의 칭찬을 연방하는 판인데, 아내 포오샤는 생긋 웃으며 그 반지를 내어놓았습니다.

멀리 바다 위에는 달빛도 교교합니다. 안토니오와 बाट사니오와 그리고 그 아내 포오샤는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끝)



워싱턴 직업 선수단의 토니·베카 아홉살 밖에 안 먹은 이 소년이 미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리그전에 출전한다니…… 여러분 한번 구경하고 싶지 않습니까?



야구와 소학생

맹한 압 형 이 영 민

방에서 뛰어나와 들로!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시절이 왔습니다. 베이스볼(야구)에 대하여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야구계의 원로이며 현재 대한 야구 협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 영민 선생께 야구 이야기를 듣기로 합니다. (천갑부)

야구는 다른 스포츠보단(규칙)과 레오리(전술)가 매우 범위가 넓고 어려우므로, 오늘날 대

제로 야구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여 우리 한국 소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구의 성격

베이스볼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일본에서 “야구” 중국에서 “봉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홉 사람이 한명어리가 되어 하는 이 게임은 워낙 변화가 많아서 구경하기에 재미있든가 또한 이기고 지는 것이 운

수에 따르는 일이 많아서 투기적 흥미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야구를 너무 쉽게 안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구는 작전 계획을 잘 세우기만 하면 좀 약한 팀이라도 기회를 얻어 적을 누를 수 있으므로 순간적으로 게임이 어떻게 되어갈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야구는 근육(몸 쓰는 것) 두뇌(머리 쓰는 것)가 똑 같이 맞아 나아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것이 다른 스포츠와 다른 것이니 아무리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두뇌가 명석하지 못하면 안 될 것이요,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몸이 튼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또 야구는 서로 힘을 합하여야만 되는 게임이니 모두가 같은 자리를

잡지키면서 서로 힘을 합
해야만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야구에는 이름씨(명사)
외에 용어가 250 가지 이
상이 있습니다. 그 용어
가운데 “씨커리파이난 헛”
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
이야말로 야구의 특징을
잘 나타낸 말이라 하겠읍

니다. 그것은 팀의 이익을 위하
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니 이미
베이스를 밟고 있는 우리 편 선
수를 목적지에 보내기 위하여 일
부러 자기는 죽어버리는 것입니
다.

다음으로 특징될만한 것은 야
구가 지니고 있는 루쟁성과 템포
(박자)라 하겠읍니다. 권투 같은
것은 때에 따라 피를 흘려가며
육박 루쟁한다고 하겠으나, 야구
는 기술을 살려서 공격과 수비 사
이에 노골적으로 도는 끊임없이
루쟁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그
리고 템포로 말씀하면 이 게임이
무척 빠른 템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는 최후에 던지는 볼을 수십 초
혹은 수 분 동안 끌게 되는 수가
있어서 매우 긴장미를 띄우고 있
읍니다. 씨름, 육상경기, 수영
같은 것은 승부를 곧 가릴 수 있



지마는 야구는 기회에 따라 선수
가 바뀔 수도 있고, 감독이 어떤
한 작전을 전달하게도 되므로 템
포는 갑자기 늦추어지는 수가 있
으므로, 다른 게임처럼 대번에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럭키 세븐”이란 말은 야구에
서 쓰는 말인데 오늘날 버젓한
현태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 7회째의 행운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코 제 7회
째만이 행운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게임 가운데는 3,4회째의 찬
스(좋은 기회)와 과반으로서로
운명을 좌우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예척하
기 어려운 긴장된 게임입니다.

야구의 기원

베이스볼이라 함은 한 개의 볼
과, 한 개의 뱃과 네 개의 베이스
를 사용하는 게임인데 미국에서

는 국기(國技)로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랑스, 도이취란트, 같
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도 퍼져 있
기는 하나 이 게임은 유럽에서는
발달되지 못하고 잉글랜드 다음
에는 캐나다, 일본이 매우 발달
되고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의 기원에 대해
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서
기 1600년대에 어떤 지방에서 소
년들이 볼을 던지고, 볼을 때리
고 하던 놀음이 점점 발달되어
베이스볼이 되었다는 말도 있읍
니다. 즉 세 소년이 한 사람이
던지고, 한 사람이 때리고, 한
사람이 나가 서서 적당한 거리에
표(베이스)를 두고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놀던 장난이었읍니
다. 이리하여 소년들의 수가 많
아지니까 캐취의 자리가 생기고
세컨 더드필드 따위가 생기
게 된 것입니다.

또 볼을 때리자 때에 따라
플라이가 되고 라이나가 되
어 멀리 달아나므로 인 필드
(내야),아웃 필드(외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년들의 놀음이 1800
년 쯤에 이르러 미국의 마블





트장군 이란 분이 비로소, 네 개의 베이스, 아홉 사람의 수비를 배치하는 오늘날과 같이 수비 아홉 매리기 아홉 싸우기 아홉의 "아홉짜리" 스포츠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급되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클럽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야구 팀이 있으며, 여자뿐만 아니라 소년들이나 소녀들이나도 팀이 있어서 매우 왕성합니다. 더욱이 야구의 최고봉이라 할만한 미국의 직업야구단은 온 미국사람의 인끼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전문 잡지가 500가지나 있다고 하는데, 원래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떤 방편이든 무엇 하나 가 발달되면 곧 이것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라, 마침내 야구단 하는 것을 직업을 삼는 직업야구단이라는 것이 그처럼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기술이 발달 향상됨을 따라 도시마다 많은 직업야구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870년 무렵에 센시나티시 야구단은 한 시즌에 81 게임을 하여 한번도 지지 않고 모조리 이겼는데 이것은 최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야구시합은,

내슈넬 리그 8팀, 아메리칸 리그 8팀이 있는데 두 리그에서 이긴 팀이 마지막으로 일곱번 싸워서 전수권을 차지하는 월드 시리즈(세계 전수권 시합)입니다.

워싱턴 야구단에는 아홉 살(어기 나이로 열 살이나 열 한 살) 된 소년선수가 리그전에 참가하여 미국 야구계에 큰 충동을 주고 세계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먼저 말씀하셨거니와 일본은 야구가 매우 왕성한 나라로, 대학 중학 소학 할것 없이 모두 야구팀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직업야구단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의 셀스야구단이 일본에 갔을 때 하루 평균 입장



자가 10만명 그수입이 15,000,000원(일본 돈으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열린 중학야구대회에는 지방 예선을 합쳐서 모두 1천 수십 팀이 참가하였다고 하니, 그 왕성한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것은 서기 1903년 무렵인데, 당시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이 신축되었을 때 총무로 착임한 필레트전교사가 청년회원에게 야구를 가르친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와이 엠 씨 에이팀이 조직되고 1913년에는 이 팀이 일본에 원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각 학교에서도 야구가 왕성하게 되어 그 중에도 휘관과 배재의 시합은 가장 인끼를 끌었으며, 1924년에는 하와이에 있는 우리 등 포들의 초청을 받아 원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드 미국팀 흑인(黑人)야구단, 일본팀들이 와서 많이 보급 발전하였으나, 일본정치의 억압으로 인하여 뜻과 같이 떨어내어가지 못하고, 가까스르 고려야구단단



이 끝까지 버티어서 우리 야구계의 역사를 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해방이 되던 1945년께부터 갑자기 새로운 힘을 얻어 야구가 다시 씩씩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미군이 전 주하여 각부대의 팀들이 우리나라 팀과 "친선 게임"을 하게 되니 이것이 큰 자극이 되어 갑작스런 야구가 왕성하게 되었읍니다. 이리하여 작년도에는 세계 아마추어 야구 연맹에 당당히 우리 한국 팀도 가맹 하게 되어 금년도에는 극동대회에 참가하고자 모든 준비를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 야구지도 기관으로는 대한 야구협회가 있어서 보급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보급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인과 소년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구경을 시키기로 하였읍니다.

소학생과 야구

우리나라 소년 사이에도 차차 야구라는 것이 보급되어서 작년도 소년 야구 대회에는 100이 넘는 팀이 나왔으니, 그 장래가 매우 촉망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되는 것은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경기체육

(競技體育)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야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선진 국가에서는 스포츠경기가 모두 학과의 정과목(正課目)으로 된 것에 비하여 아직 인식이 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바빠 이것이 수정되어서 소학생들도 야구게임을 왕성히 하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들팔매" "장(杖)치기"가 성행하여서 이것은 청소년간에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 일본사람들은 들팔매의 선수 조선야구단 이라 부른 일이 있었읍니다. 근자에는 우리나라 소년들 사이에 "점프"가 몹시 유행

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대체로 야구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 도구가 없이 맨 주먹으로 하는 야구라 하겠읍니다. 가난한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는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점프"는 야구의 기초가 되고 초보가 되는 좋은 놀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소학생들이 정말 야구를 하게 되면 다행한 일이거니와 돈이 없으면 이 "점프"같은 단체경기를 장려하여 야구의 협동정신, 투지력 두뇌의 훈련을 기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차泰遠 선생님의 걸작 少年小說!

소년 탐정단

아름다운 우정과 불붙는 의협심과 아슬아슬한 모험을 담은 보기드문 소설책!

정 현웅 선생 말씀.....나는 여러 책에 삽화를 그렸지만 이렇게 재미 있고 유익한 책은 처음 본다. 역시 대소설가의 작품은 다르다.

그림·정 현웅 ★ 책값 250원 ★ 발매개시

글벗집책 ★ 독말대 文章閣 (서울)

채식주의 소년

(4)

엄 상 섭 (그림·김 규택)

운동회 때문에

1

긴긴 낮에는 절간 같이 조용하던 집안도, 아침 저녁 밥때만은, 이 안채가 부산하니, 엄병 텅텅 떠들썩 하여졌다. 온 종일 몸이 가빠서, 소설이나 잡지 신문따위로, 노랗 누워서 지루한 하루나절을 보내던 모친도, 저녁 지을 때가 되어 선뜩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정신이 번쩍나서 안으로 들어오고, 부친은 연회나 있으면 몰라도, 매일 다섯 시가 넘어서는 꼭 꼭 제시간을 대어 들어 와서, 규상을 데리고 앞뒤뜰의 화초밭이며 화분에 물을 주고 손수 매만지고 한 뒤에, 집안 직구가, 명순이가 찌도 한 상에 둘러 앉아 저녁을 먹는 것이었다.

오늘도 다섯 시가 좀 지나니까, 밖에서 자동차소리가 뽕하고 나더니, 부친은 벌써 돌아와서 양관으로 들어갔다. 자동차 소리가 나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서 시중을 둘러, 무거운 몸이 지마는 우리나라 양관으로 뛰

어 나갔다.

용산 고려방직 회사의 전무(專務)로 있는 규상이 부친은, 아침 저녁, 회사의 자동차로 통근하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면, 몸을 들에 조개 쓰고 싶을 만큼 바쁜 아버지요, 또 그렇게 바쁜 몸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일찍 집에 돌아와서 쉬려는 것이지만, 몸이 시원치 않은 젊은 어머니가 종일 심심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든지, 그보다도 큰 것들—규상이 남매—에게 대하여는 아무때도 자기가 반(半)어머니 노릇은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은 일찌기 들어와서 저녁밥 한때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재미있게 함께 먹어 주고, 저의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나 하소연을 들어 주고 나면, 저녁에는 공부하는 것을 보살피기도 하는 것이다.

양관, 자기방에서 노오라이에 짧은 바지로 갈아 입고 들어오는 부친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무어 시원한 거 없니?”

하고 소리를 친다.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참의를 벗기고 토마도를 찢어담고 하던 진숙이는, 쟁반에 과일 접시를 바쳐 들고 부엌에서 나오면서, “어서 올라 가십시오.”

하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마루에 간 듯자리에 확정하고 앉는 아버지 앞에 쟁반을 내려놓는다.

“규상아, 너두 올라와 먹어라.”

부친은 달려드는 어린 규영이에게 토마도를 하나 집어 주며, 뜰에서 화초물 줄 차비를 차리는 딸아들에게도 소리를 쳤다.

“네, 전 먹었어요.”

부친이 들어오면 같이 앞뒤뜰로 돌아다니며 화초밭에 손질할 차비를 차리기에 분주도 허거니와, 저녁 먹기 전에 부친을 따라서 한 시간쯤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이 유쾌하고 재미있었던 일과이기도 하였다.

부친은 참의 두어 쪽과 일반 감 하나를 먹고, 까무스름한 옷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축대로 내려선다. 기름하게 네모진 상(相)

이 무뎠고 서글서글하여, 규상이처럼 여무쳐보이는 데는 적은 대신에, 순후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보통보다는 큰 키에, 반팔 셔츠 밖으로 내놓은 두 팔과, 단고(短袴)밑에 죽 뻗은 정강이를 보면 살빛은 하얗지만 기운골도 있고, 떡 벌어진 가슴패기가 전장하여 보이는 중년 신사다.

한바탕 돌아 다니며 화초를 가꾸고 쓰레질을 해내고 한 뒤에, 규상이 아버지는 손을 씻고 나서 담배를 붙이며,

“땀은 날다마는, 해가 지니 선 들한 품이 벌써 다르구나.”

하며, 측대 위에 올라서서 높다란 푸른 초가을 하늘을 치어다보는 양은, 옆에서 보기에다 상쾌하다.

“오늘두 아주머니께선 왜 못들어 오시는지?”

마루에서 상을 보던 새어머니가, 올라와 앉는 부친에게 건너방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집은 넓고 적은 식구나마 아이들뿐이라, 건너방 할머니가 없으면 아이들만 적적해 할 뿐 아니라, 계모 역시 시집 온지 벌써 삼사년이 되건마는, 두 남매 틈에 끼어서 자기는 언제나 고독한 처지거나 하는 생각이 있느니만큼 그 마나님이 천정 어머니나 되는 듯 싶이 의지가 되어, 끼니때면 쓸쓸해 하는 터이었다.

“아 참 아까 회사루 원태가 왔는데, 아마 걸게 끝짓는가 보드군. 이질 기운이라니 노인네가 펍 지치실거 아닌가.” 원태란 건너방 마님의 상위

★채석장의 소년★

지금까지 이야기 줄거리

더위도 마지막 고비를 넘으려는데, 제법 선들 바람 부는 날씨가. 그 날도 완식이는 어머니와 함께 피약벌에 앉아서 조약들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채석장 넓은 마당에서는 소년들이 풋뽕 지르는 소리가 땡 땡 나기 시작하였다.

완식이는 처음에는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으나 나중에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불안간 원 소리와 함께 완식이는 풋뽕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그 소년들 가운데 제일 점잖은 규상이라는 소년은 완식이 어머니에게 몇번이고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거만한 영길이는 “그깟놈” 하면서 돌보려고도 하지 않고 풋뽕만 계속해 지르는 것이었다.

규상이는 비록 이북에서 넘어왔지만 잘 사는 집아이요, 완식이는 남산 국민 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집형편으로 부득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 채석장에서 벌이를 하는 처지였다.

말이다. 오늘 짚은 들어오게 되리라던 마님이 못 들어 온다는 기별 겸, 약 값을 얻으려 온 눈치 같기에 규상이 아버지는, 용 쓰시라고 삼천 원을 약 값으로 주어 보냈다 한다.

“그거 안됐군요. 정 심하시면 입원이라두 시켜드려서 어서 일어나셔야 할텐데.”

규영 어머니는 마님을 극진히 생각도 하지마는, 당장 집안 살

그 이튿날, 또 그 다음 날도 채석장에는 완식이 어머니만 혼자 일을 하고 있다는 동무 박 봉수의 말에, 규상이는 학교를 파해가는 길에 가 브려고 했다. 그러나 영길이는 이에 반대한다.

봉수는 영길이 주먹이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규상이 말이 옳은 데야 규상이를 따라 갈수 밖에 없었다.

완식이 어머니는 좋은 낫으로 그들을 대해주며, 소년들에게 그날 너머진 맛을 하려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규상이와 봉수가 집을 가르쳐 달라고 하두 조르는 통에 완식이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산 밑 방공굴 자기 집을 일터 주고 말았다.

완식이에 집은 방공굴이나마 깨끗하고, 앞에는 참의 가게가 있었다. 완식이 누이와 그리고, 두 소년은 재미있게 한참동안 참의 가게 앞에서 이야기했다. 헤어질 두렵에 규상이는 완식이에 참의 삼백원어치를 사서 완식이에 굴 문턱에 쑥 들여 놓고 그냥 뛰어 도망해 나와 버렸다.

림을 어린것들에게만 맡겨 들 수 없는 것과, 저러다가 해산구원할 뚝 알맞은 마님을 놓칠까 보아서도 그러는 것이었다.

“뭘, 곧 일어나시겠지, 아이들 이 좀 쓸쓸할찌 모르지만...”

아랫방은 들이나 텅텅 비어 있고, 밤이면 안채가 더 쓸쓸한 것이 주인영감에게도 애가 써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열 시가 넘도록 놀다가 곧드러



떨어지면 무서운 줄도 몰랐다.

“아버지, 저 다락의 내 운동화 한 켤레 동무줘두 좋겠죠?”
부산히 저까락질을 하던 규상이가, 무슨 혼잣생각을 하다가, 부친을 마주 치어다보며 불쑥 말을 꺼냈다.

“그건 뭐? 너두 싫어야지.”

“아직 서너 켤레 있던데요. 고무신이 꿰져서 거친 멘발질을 하는 불쌍한 애가 있어서 갖다 주려구요.”

규상이는 손칼을 든 손을 멈추고 열심으로 조른다.

“아무려나 하려무나. 너의 반애야?”

운동화 한 켤레에 사오백원하겠지마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아는 공장에 특별히 맞추어다 두고 신키는 것이니만큼, 까닭 없이 동무들에게 활수 좋게 령령 내줄까 보아 그러는 것이지마는, 그렇게 신심을 쓰려는 어린 마음을 받아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부친은 생각하는

것이였다.

“애는 요새 새루 얻은 동무에게 아주 반해 옹드러졌답니다.”

부친의 옆으로, 모친과 마주 앉은 누이가 생글 웃으며 말을 거들러니까,

“학교두 못다니구 가엾은 애지만, 아주 좋은 애예요.”

규상이는 썰던 고깃저름을 삼킬 재도 없이 열심으로 대꾸를 한다.

“학교두 못다니는 그런 애하구 어떻게 어울려 놀게 됐단 말이냐? 요기 극장 앞에서 뱅뱅 도는 조물랭이 가다패라 든가 하는 불량소년은 아니냐.”

부친은 공부 잘하고 반장인 우리 아들이 설마 그러라고 믿기는 하나,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었다.

“그런 애 같으면 내가 같이 뭐 놀겠어요. 조기 굴 속에서 살면서 저 어머니하구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뜨려 번 돈을

모아 가지구, 인제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는 애예요. 그 어머니도 꼭 우리 어머니 같이 생긴이가 어떻게 암전하구 마음이 좋은데요!”

규상이는 열고가 나서 변명이다. 그러나 부친은, “우리 어머니 같이 생긴이”라는 말에, 빙긋 웃으며, “어떤 어머니?” 하고 물으려다가, 돌아간 어머니 같다는 대답이 나오면, 옆에 앉았던 새어머니가 듣기에 좋아할 것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자코 자실 것만 자시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옆에 앉아 어린애 시중을 들던 규영 어머니도 그 말이 귀에 들렸던지, 무심코 규상이를 힐끗 둘러다 보고는 빙긋 웃는 부친에게로 눈이 갔으나, 못들은 척하고 후딱 없어진 고깃접시를 들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내려간다. 선모습인 규상이는 자기 말이 새어머니 귀에 어떻게 들렸는지 그런 눈

치는 못차렸으나, 옆에 앉은 누이는 벌써 계모의 기색을 알아차리고, 동생에게 눈짓을 했다. 재어머니 앞에서, 돌아간 어머니 말은 꺼내지 말자고 들이 이야기 해 둔 것이 있는지라, 그제야 규상이는 알아차렸다는 듯이, 해에 웃으며 왼손이 머리로 올라갔다.

부친도 모든 것을 알아차렸으나, 모른척하여 버렸다. 젊은 아내를 혼잣 생각으로라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남편이나 전취 소생인 남매가 무심증에라도 전택내, 난어머니를 칭찬한다는 말 눈치를 듣고 실쭙해 하지 않는 여자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도 재어머니가 생김 생김이와 덩지 보아서는 너무 칠칠치 못하니, 아버지도 가다가는 돌아간 어머니 생각을 하고 나무랄 때도 없지는 않았다. 그럴때면 규상이 남매는 한편으로는 듣기 좋기도 하고, 어머니 생각이 불현듯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웃음만 지어 보이는 재어머니가 가없기도 하였다.

별 걱정 없이 단란히 지내는 집안이요, 부친도 매사를 잘 눈치채고 공평히 처사해 주셨다, 계모라고 명트를 박아서 이러니 저러니 말썽스러운 일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나, 늘 이러한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놓곤 하였다.

부친도 인제는 아이들이 머리가 커졌을 뿐 아니라, 날이 가고 해가 가는 동안에 죽은 어머니 생각도 차차 엷어지거니, 한시

름 놓는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젊은 재어머니와 사이에는 결이 덜 삭은 데가 있고, 무언지 모르게 가로 막힌데가 있는 것 같아서, 자칫하면 집안에 쓸쓸한 공기가 도는 듯 싶고 아이들이 풀이 빠져 보이기도 하여, 사십이나 된 규상이 아버지에게는 늘 그것이 싫기도 하고 은근히 마음이 써우는 것이었다.

잠간동안 이야기가 뜸하였다가, 규상이는 또 불쑥,

“아버지 한 만원 든다는데, 그 애 학교나 좀 들여보내 주셨으면 어때요...”

하고 싱글 웃는다.

“허허허 ...참 정말 여간 마음에 드는게 아닌게로군! 그러나 너 아버지가 무슨 큰부잔 줄이나 아는

계로구나?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공부는 시켜야 하겠지만, 너 아버지가 거리의 아이들을 좇아 데려다가 공부시킬만한 그런 부자는 못된단다.”

하고 부친은 꺾꺾 웃었으나, 그런 주책없는 소리 말라고 나무래거나 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사권, 어떤 아이지는 모르겠으

나, 어쨌든 그러한 동정심이 많은 우리 아들이 제법이로우나 하며, 속으로는 규상이를 칭찬하고 귀엽게 생각하였다.

“내가 벌이를 한다면 그런 애를 척척 도아서 공부들 시켜주련마는...”

규상이는 더 줄라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자탄만 하였다.

“그래. 공부 잘해서 잘 벌여가지구, 없는 애 공부도 시키구, ...아버지 못한 일을 내가 해야지.”

부친은 신기가 좋아서 이렇게 대꾸를 하여 주다가,

“그렇게 어려운 애면 운동화를 갖다 주는 것은 좋지만, 막 벌이나 하는 그런 애하구 노는 것은 좋을 거 없어. 웨 학



교 동무가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그런 애하구 놀드란 말
이나.”

하고 부친은 눈썹을 찌푸려 보
였다. 그 아이 어머니가 규상이
어머니 같이 얌전하고 무던하던
말에, 부친은 과히 나쁜 아이는
아니려니 짐작하면서도, 하여간
그따위 굴 속에서 사는 들 깨뜨
리기 아이와 놀리기는 싫었고
좋지 못한 거나 배울까 보아 염
려도 되었다.

(2)

이튿날 규상이는 학
교에 가서, 첫시간이 끝
나고 나오다가, 복도에
서 담임 선생님을 불렀
고,

“학교에 전학해 오자
면 돈이 얼마나 됩니
까?”

하고 물어보았다. 완식
이와 그렇게까지 친한
재도 아니려니와, 완
식이 자신은 자기가 완
식을를 생각하느니 보
다도 규상이를 받도 생각지 않
는 모양이요, 도리어 찾아가고
학교에 못다니는 것을 걱정해
주고 하는 것을, 성이 가서 하는
눈치로 설면설면히 굴지마는 역
시가 없었고 마음에 키었다. 만일
선생님께 청을 해서 싸게 넣어
줄 수 있다면 칭이라도 해보자
는 생각이었다.

“왜 그래? 한 만원은 들겠.”

규상이를 귀해하는 선생님은
싱글싱글 웃으며 대꾸를 한다.

“그보다 적게는 안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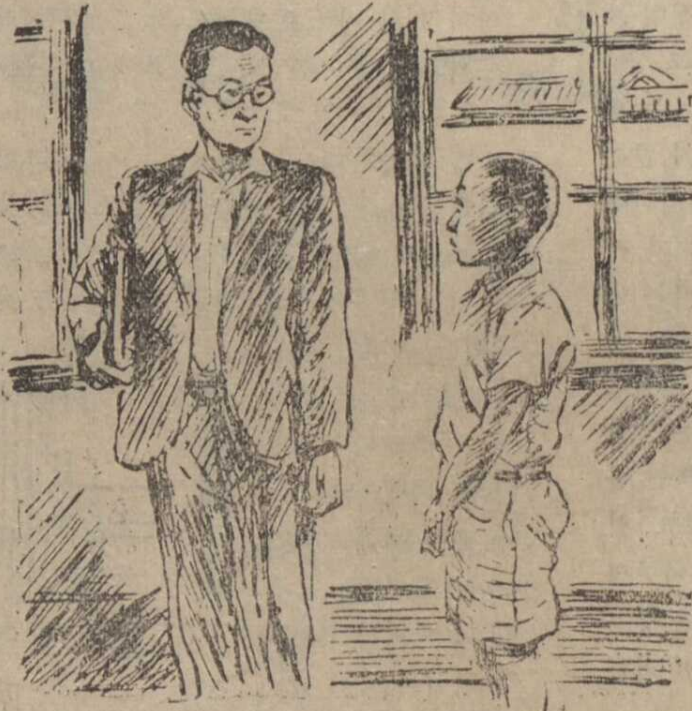
아주 어려운 애네, 공부는 잘
하구 똑똑한 애예요.”

“누군데? 그런 애거던 돈 많
으신 집의 아버지께 좀 대어
주시라지.”

하고 선생님은 지나는 말로 웃
는다.

“한 오천 원이면 되겠조?”

규상이는 가망이 있나 보다하
는 생각으로 방공굴에 산다는
것과 채성장에서 벌어서 만원
학비를, 일년 작정으로 모으고



있다는 말을 열심으로 설명하였
다.

“허나, 그게 최소한도의 규정
인데... 뭐나 첫째 재리가 있어
야지. 인제, 내년봄에는 저 등
리에 학교 하나가 또 되니까
그리 가라지.”

성생님은 규상이의 일가애도
아니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런 아이였야. 어린아이의 쓸
직한 순정은 못 알아 들배 아니
나, 탐탁히 생각지는 않았다.

규상이도 자리가 없다는 비야

더 말이 아니나왔다. 그러나 부
잣집 아이라면야,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 전학할 때처럼 기부
금을 넉넉히 내면야, 자리를 비
집지 못할 것도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여 보니, 대관절 돈이
란 무언가? 하고 돈이 좋기도
하고 더럽다는 생각도 든다.

“-형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
는 사람이나 똑 같이 내라니
공평이 지나쳐서 도리어 불공
평하지 않은가? 더구나 의무

교육이 된다면서...”

규상이는 이런 불평
도 혼자 생각하다가,
저번에 완식이가, “그건
규측인데...나 앓을 책
상값은 해 들여 놓아야
지.” 어찌고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오르자, 아무
불평도 말하지 않는 완
식이가, 자기보다도 더
소견이 있고 마음이 바
른 아이라고 다시금 탄
복하는 것이었다.

이 날 저녁때 선들
바람이 나기를 기다려

서 규상이는, 운동화를 신군지
에 싸들고 나섰다.

“그런데 가면 어디서 노니?
글속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니
참외 좌판에서 노니?”

진숙이는 동생의 거동을 말끔
히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을 불
인다. 동생이 하두 칭찬을 하고
더구나 그 어머니가 돌아간 어
머니 모습 같다는 말에, 규상이
를 따라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한편에 없지 않지마는
방공굴이나 참외가게의 좌판에

서 규상이가 노는 꼴을 머리에 그려 보고는, 지저분하고 싫은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아무려면 어때.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지. 내, 운동화 신겨 가지구 데리구 올께, 좀 봐요.”
“그래, 데리구 오너라 좀 보게.”

규상은 누이도 자기와 같이 그 아이에게 흥미를 가지는 것이 무슨 원조자(援助者)나 얻은 듯이 좋았다.

완식은 해가 지나간 칠패가게 위에 맨 원두막에 올라 앉아서, 무슨 책인지 열심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무슨 공부하니?”

“흥, 사회생활야.”

완식은 책을 덮어 놓으며,
“어젠, 그건 뭐 사 놓구 갔니 고답진 하지만, 집에 있는건데 꽤니 돈을 들여서...”

하고 어제 칠패를 사 놓고 간 인사를 하였다.

“그래 오늘은 좀 어떠냐?”

“응. 인젠 괜찮어.”

규상이가 발드뎌에 발을 얹어 놓으며 올라가려는 것을 보자, 완식은

“가만있어, 내, 내려 갈께.”

하고 쟁쟁 뛰어내린다. 그만 큼 완식은 어제보다 열이 빠지고 몸이 거뜬하였다. 규상은 손에 들었던 신문지 봉지를 슬며시 그 원두막 한구석에 놓고, 완식을 따라서 어제 놀던 가계터전 뒤의 걸상으로 가서 나란히 앉았다. 완식의 생각에는 이 귀빈(貴賓)을 거리에서 딱히 보이는 그런 원두막 위로

끌어 올리기가 안되어서, 조금이라도 구석진 이리로 끌어다가 앉힌 것이었다.

“내, 오늘, 우리 선생님께 한 오천 원만 가지구 들어갈 수 없겠느냐구 여쭙어 보니까, 그건 고사하구 자리가 없다는 구나...”

규상은 우선 급한 보고가 이것이었다.

“응!...”

완식은 이렇게만 대꾸를 하였으나 부탁도 안한 일을 제풀에 물어보아다가 주는 규상이가 고마웠다.

“인제 이 동리에 학교가 또 하나 된다나. 그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귀운가 보드라.”

“응! 그래?...그건 언제 된 다던?”

완식은 반색을 하였으나, 인제 집을 절 계획이니까, 일러야 내년 봄에나 개학을 하게 되리라는 담임선생의 말대로 일러주 니까,

“그럼 안되겠는 걸...난 내년 일월 개학 때엔 들어가야 하겠는데.”

하고 실망하는 낫빛이었다. 규상은 한참 생각하다가,

“너, 우리 집에 놀러 가자.”

하고 불쑥 말을 꺼냈다.

“싫어, 난 싫어.”

“왜? 가자구나.”

완식이 하두 질겁을하며 들이질을 하는 것이, 그 뜻을 어렵듯이 짐작은 하면서도, 그다지도 유난스럽게 잡아떼는 양이 이상스럽고 섭섭하여 멀뚱히 바라보다가,



(문) 착척박사 할아	(문) 바깥한 질문을
바지 오래간만에 한	물겠읍니까. 으면 단
가지 연구했지요. 하	히고 또 밑으면 열
하 벌써부터 떠시네.	는리 가. 무엇? 그
자 준비하	리고 또 하
세요. 한길	나, 좌측과
에 무릎을	득 빈만 늘
과면서 가는 것이 두	으면 언뜻은이 아주
엇? (서울 혜화교 5	늘으면 까마등이가 모
의 1 주 명덕)	엇? (서울 돈암교 6
(답) 오래간만에 건	의 2 여 경현)
구한 것이 겨우 그	(답) 문제가 그럴 듯
건가. 그건 지장이.	한데, 그렇지만 난 못
(착척박사)	속여. 먼저 것은 성
(문) 착척박사 할아	남감. 다음 것은 매달.
바지 안뵈하십니까?	(착척박사)
한 해가 지	(문) 착척박사 할아
나서 대머	바지 안뵈하십니까.
리가 더 넓	대답하시느라고 병이
어지겠읍니까. 자 그	나 안들으셨는지요.
럼 울타리 밑에 칠패	방울은 방울인데 소
를 뿌려 놓은 것이	라나지 않는 방울이 무
무엇? (서울 마포교	엇입니까? (서울 서
5의 4 이 장윤)	대문교 5의 2 김
(답) 대머리 걱정이	승영)
지 해 주니 고답네.	(답) 그것은 수두룩
짜래기 눈 아닌가.	하지 비누방울 물방
(착척박사)	울 눈물방울 빗방울
(문) 안뵈하십니까?	등등 얼마든지. (착
과련 집 안에 하얀	척박사)
집, 하얀 집 안에 빨	(문) 착척박사 할아
간 집, 빨	바지, 얼마나 용하시
간 집 안에	기에 사랑으로 소문
시꺼편 것	이 났읍니까. 어쨌든
이 오글오글이 무엇	용하가 하시기에 여
입니까? (서울 종로	기까지 일부러 찾아
5가 125의 2 고	왔읍니다. 노랑고 등
기덕)	그런자가 무슨 자입
(답) 이 문제는 전	니까. (충남 광천 제
에도 한 번 있었지.	이교 6년 김 영 회)
“소학쟁”을 잘 읽	(답) 찾아오시느라고
어 보지 않았군.	대단히 수고했네. 그
그건 수박이라는 것	것은 랭자말인가. (착
일제. (착척박사)	척박사)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놀다가, 아버지 들어오시거든 학교에 좀 들어가게 해줍시다구 말씀을 해보란 말야. 아버진 학교 교장이나 우리 삼촌 선생님하구 친하니까, 청을 하면 자리가 없드라 두 어떻게 반집어서 넣줄지 모르거든.”

하고 제 속셈을 터놓고 일러주었다. 고집 불통인 완식이도 그 말에는 솔깃해지는 눈치였다. 그러나 또 한참 생각하다가,

“너 아버지가 어떤 어른인지, 나 같은게 가서,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냐?”

하고 꺾 웃는다.

“이런 얼뜬소리 봐! 우리 아버진 호랑이란 말이냐, 뭘 무서워, 아이들 귀해하시구 좋은 양반이란다.”

규상이는 동무를 안심시키자는 말인데 어느덧 아버지 자랑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실 마음 착하고 집안에서 큰 소리 한 마디 내는 법 없이, 늘 웃는 낯인 좋은 아버지에는 틀림 없었다.

“그래두 오늘은 못가, 누나가 지금 나갈테니까.”

완식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완식이 누나 완희가 굴속에서 나오며

“너 또 왔구나?”

하고 규상이에게 웃어 보인다. 굴속에서는 나왔을 법해도 어찌처럼 얌전히 빨아다린 깨끗한 적삼에 부송부송한 치마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발등도 하

얀 것이, 저의 어머니처럼 그리 고된 일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규상이는 인사대신에 웃어만 보였으나 아마 종점으로 가서 신문을 받아가지고 팔터 나가나 보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 곧 오시겠지만, 배고 푸거던 밥상 차려 놔으니 혼자 먹어라.”

완희는 아직 열다섯 살이지만 이렇게 잠잠히 동생에게 일러놓고, 산들바람에 시원한 듯이 살랑살랑 큰 길로 내려간다.

규상이는 완식이가 혼자 앉았는 것을 버리고 가기가 안되었기에 좀 더 앉아서, 만주 이야기, 해방하였을 때의 이야기, 삼팔선을 넘어 올 때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그래 너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설마 우리가

이 지경이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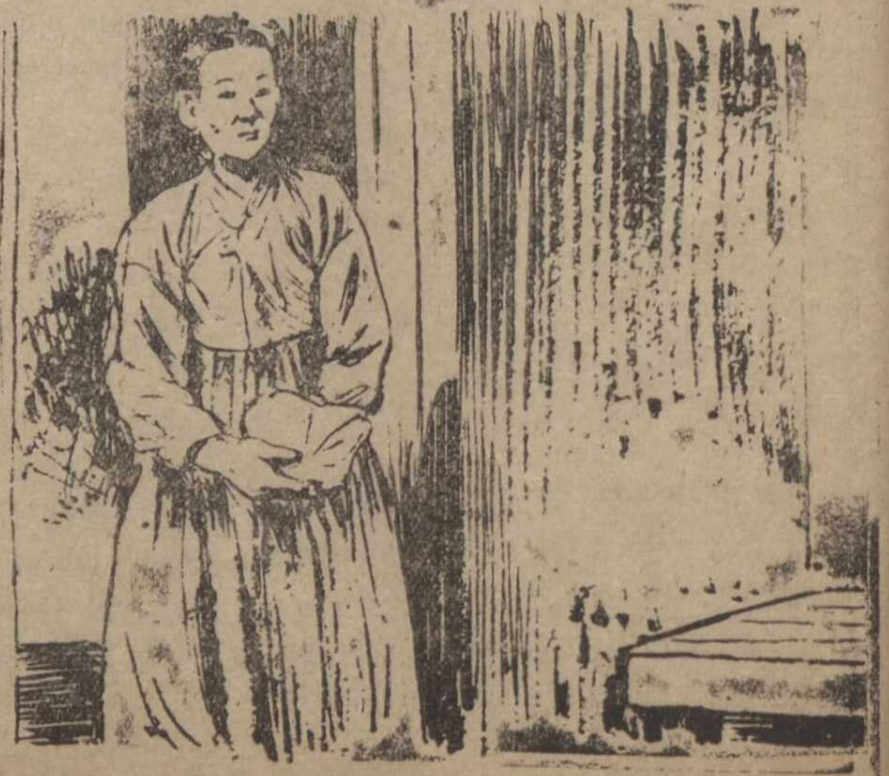
하고 완식이는 풀없는 얼굴빛이 된다. 규상이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더 물어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 만주서 아버지두 안계신데 뭘하구 있었니? 얼른 나오지 않구?”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 선생이셨는데, 전쟁 때 조선 나와두 별 수 없으니까 그대루 있었지...”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다는 말에, 규상이는 일변 놀라기도 하며 일변 그 아낙네가 내 어찌 다르더라니...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아무려면 학교 선생을 다닌 이가 돌을 깨는 막벌이를 하더란 말인가? 하는 의분(義憤)이 치밀어서

“그럼 왜 너 어머니 선생노릇을 다시 안하시구, 이런데서 이렇게 뻔단 말이냐?”



하고 편지를 주었다.

“하지만 서울 와선, 별안간 아는 사람이라곤 피난민 뿐이요, 고향엔 가기가 창피스럽다 하시구...그러는 동안에 불탄리를 만났으니, 인제는 빨간 몸뚱아리만 남아서 어디를 가질 수두 없구...”

하고 완식이는 말을 끊다가,

“우리 어머니두 인젠 늙으셨기두 하지만, 애, 한글이니 사회생활이니 어렵드라.우리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거든, 일본것은 행하셔두, 우리 나갓진 모두 재판으로 배서야 할텐데, 그걸 배질 새가 있어야지 않니, 되레 어머니를 알으켜 드린단다.”

“참 그렇기두 할제다.”

하고, 규상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해는 아직 높다랗다. 차차 아버지가 돌아올 때가 되었을 것 같아서 화초에 물 줄 일을 생각하고 일어섰다.

“그럼 어머니 오시거던 말씀 여쭙구 있다라두 꼭 놀라오렴.”

헤어지면서 규상이는 또 한번 더졌으나, 완식이는 싱글싱글 웃기만 하였다.

규상이는 원두막 앞터에 놓인 운동화 봉지로 눈이 갔지만, 신어 보라고 풀어 보였다가는, 난 그런 것 안신는다고 심술이나 부리고, 무안스럽게 뒷자를 맞을까 보아 참아 말을 못꺼내고 와버렸다. 완식이도 그 봉지에는 무심하였다.

(3)

“나 좀 보세요.”

하는 소리에, 부엌에서 저녁상에 늘 전유어를 썰어 담고 있던 진숙이가, 내다 보니, 누런 베치마에 베적삼을, 입은 아낙네가 손에는 신문지에 싸인 것을 들고 섰다.

“이 데에, 김 규상이란 학생 있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진숙이는 이 아낙네가 누구인지, 그 손에 든것이 무엇인지 첫눈에 짐작이 났다.얼굴은 까맣게 탔어도 상냥스럽게 웃는 그 눈과 입모습이, 규상이에게 몇번이나 들었고 머리에 그려보던 그 얼굴이었고, 손에 든 것은 아까 규상이가

싸 가지고 나가던 그대로였다.

“저 워서 잡니다마는, 이것을 댁 애기가 우리게 놀라 왔다가, 잊어 버리구 갔기에...”

아낙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규상이가,

“네? 뭐예요?...”

하고 튀어나오다가, 저만큼 아랫방 모퉁이에 완식이 어머니가 섰는 것을 보자,

“안녕합쇼.”

하고 마루 위에서 구뻑하며 반겨 뛰어 내려온다.

“아니, 그건 댁의 동무애한테 갖다 준다구 가지고 간 것인 데요..”

누이가 앞질러 대꾸를 하고 섰다.

“은 천만에! 언제 알았던 동무라구 그런걸 다아...”

완식 어머니는 여전히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며, 손에 든 것을 아랫방 뒤편마루에 놓는다.

“아네요. 완식이 갖다 주세요.

집에 있는 거길래, 한 켄레 신어보라구 가지구 갔는데, 그애 성미에 받을 것 같지 않아서, 그때루 놔두구만 온거예요.”

규상이는 눈이 커대지며 방문 밑에 놓인 운동화 봉지를 집어 완식어머니에게 쥐어주려한다.

“하하하...난, 사들구 가다가 놓구 간줄 알았군, 하지만 그애 성미를 어찌면 그렇게 잘아누!...”

하며 완식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고 자기 아들의 성질까지를 잘 알아 주는데에 감복하여, 소





미국에 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사절은?

민영익(閔泳翊)선생

조용만

우리 대한 민국이 전 뒤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 제일 먼저 미국 대사가 되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분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장 면(張勉) 선생이십니다.

그러면, 그전 옛날, 지금부터 70년전에, 그 당시 우리 나라와 미국이 처음 한미수호조약(韓美修好條約)을 맺고, 외교왕래를 하게 된 뒤에, 맨 처음으로 우리 나라 사신이 되어, 미국에 간 사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이름은 민영익 선생이십니다. 단기 4215년, 서기로 1882년, 임오(壬午)년 4월 1일이, 미국과 수호조약이 체결된 뒤, 그 이듬해 사월에 미국에서 푸우트라는 분이 우리 나라 공사(公使)로 왔습니다. 푸우트 공사는 서울 창덕궁(昌德宮)에 들어가서, 고종(高宗) 황제한테 뵈었고, 우리 나-

라가 빨리 개화하기를 아뢰었습니다.

이것을 들으신 황제께서는,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보고 오라고 하시어, 그 해 7월에 보빙사(報聘使)라는 이름으로 당시 외아문협판(外衙門協辦)이던, 즉 지금 치면 외무대신이던 민영익(閔泳翊)을 전권대신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시었습니다.

이 보빙사 일행은 물론 그 때 한복으로 7월 26일에 인철을 떠나, 9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11월에 워싱턴에 도착하여, 국무경(國務卿)을 만나고, 18일에 뉴욕에서 아이더 대통령

리를 내어서까지 웃으며,
“그래 그 애 성미가 이상스러워서 남이 주는 걸 거북해하구, 없는 집 자식이 꽤 까다라워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주는 것을 뼈죽히 입고 나서거나 신고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질야, 마음만 해두 고맙구 꾸뎀하지! 어젠 또 침외를 사주구 가구...너무 그러면 내가 되레 미안해요.”

하고 남매를 번갈아 보며 보며 인사를 한다.

“내가 뭘 했다가 그러세요? 다쳐줘서 며칠씩 번이두 못가게 한 겁으루...”

완식 어머니는 규상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손을 내두르며,

“에그, 인젠 다시 그런 소리 말아요, 어쨌든 마음만이라두고 맙다, 잘 있거라.”

하고 완식 어머니는 돌쳐서 란다.

“그러지 말구 갖다 주시죠. 동무끼리 맘 먹구한 일을... 참 대 아이를 다쳐 수엿대죠?”
전숙이도 운동화를 주어 보내려고 권하며, 완식이를 다쳐준 인사를 하니까,

“무얼 댁 얘기가 그런 것두 아니지만...참 그런데 학생아 씨는 누나가 되는 거지? 어머니께선 안계슈?”

하고 완식 어머니는 어머니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고 싶다는 말이였다.

“네, 몸이 좀 아프셔서 뉘게 서요.”

오늘은 부친이 좀 늦겠다는 전화가 있어서, 벌써 여덟 시가 되었건마는 저녁들도 아니먹고, 어머니는 부엌일을 대강 거들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부친이 들

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

완식 어머니가 마악 돌쳐서려니까, 문 밖에서는 뿌루를하고 차가 와서 닫는 소리가 멀리서 난다. 규상이는 그까짓 신발 짝을 들고, 마다는 것을 어른더러 자꾸 가지고 가라고 복장을 안길 수도 없어서 단념하고, 손에 들었던 봉지는 뒷마루 끝에 던져 버리고 가는 이들 배웅할 겸 아버지를 마지하려 대문께까지 따라나갔다.

완식 어머니가 양관의 현관까지 오자니까, 벌써 대문 안에 들어선 주인영감과 마주쳤다. 현관에 마중을 나와선 규영이모자에게 웃음으로 아른체를 하고 난 부친의 시선이 이리로 오자, 규상이 앞에서 멈춰 서며 주인이 지나 가기를 기다리던 완식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완식

과 회견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일행은 피프트•안베 류 호텔에 묵으면서 국민의 대우로 굉장한 추대를 받았읍니다.

당시 미국은 나라가 전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개화가 놀라워서, 일행은 크게 서양문화에 놀랐읍니다.

그 때 부대신(副大臣)으로 갔던 분이 홍 영식(洪英植)이란 분이었는데, 이 분은 나중에 김 옥균(金玉均)선생과 같이 개화당이 된 분으로, 이 분의 새 사상은 미국 철학에서 생긴 것입니다. 특히 우편사무(郵便事務)는 미국 것

을 본 따오기도 이 때에 홍 영식 선생이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뉴욕에 묵으면서, 난생 처음 보는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끌고오 보고 미국 국민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일행은 다시 두패로 나누어서, 민 영익 선생은 11월 3일에 미국을 떠나 구라과를 거쳐 귀국하기로 되었읍니다. 이리하여, 민 영익 선생 일행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구라과 각국에도 우리 나라 사절로 처음 간 세습입니다. 이리하여 뉴욕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11월 11일에 불탄서 마르세이유에 도착하고, 파

리, 런던, 로마 등, 구라과 각국을 시찰한 후, 이듬해 6월에 서울에 돌아왔읍니다.

돌아와서 고종께 미국 대통령과 국민들의 환영을 일일이 알리고, 미국을 비롯한 구미 각국의 찬란한 문화, 문물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종께서는 매우 기뻐하시어, 그 때부터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깊어갔고, 그 이듬해에 정식으로 박 정양(朴定陽)씨를 주미공사(駐美公使)도 파견하시고, 국제 관계에 대한 모든 일을 푸우트 공사에게 문의하시게 되었읍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하여 보이니까 부친도 모자에 손을 얹어 인사대답을 한다. 쓴살 같이 빠져 나가는 완식 어머니는, 어쩔 결에도 주인아씨를 힐끗 보고,

“어구, 영감보다 껍은 짧다!”

고 생각하였다.

부친은 오늘 약주기가 있었다. 밖에서 친구와 회식(會食)이 있었던 모양이나, 그래도 부친은 아이들을 위하여 식탁에 나와 앉았다. 오늘은 저녁은 생각없으니, 술이나 한잔 지시겠다 하여 주전지가 올라오고 다른 안주를 꺼내오고 하였다.

“아까 그 안손님은 누구냐?”

부친은, 그릴에서 먹던 후라이보다도 우리 집 전유어가 훨씬 맛있다고 칭찬을 하여 어머니와 누이를 웃기고, 한참 신기

가 좋더니, 회제를 돌려서 이번에는 규상이에게 말을 부치었다.

“어제 말씀한 그 애 어머니예요.”

규상이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물어 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대답을 한다.

“응..., 왜 왔어?”

부친은 속으로, “내 그저 그런 듯 싶더라...” 하는 생각이었으나,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아년게 아니라, 키가 자그마하니, 날씬한 몸집이라든지, 힐끗다주친 그 눈썹과 얼굴의 윤곽이 어디서 보던 사람 같이 낯서 투르지가 않고, 직각적(直覺的)으로 규상이가 말하던 “어머니 같은 아낙네” 인가 보다고 대번에 짐작이 들었었다.

“운동회를 다시 가져왔어요.”

“흥! 어려운 사람이 되우 끝

말한 체는 하는 게로구나?”

부친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따는 방공굴 속에서는 살벌해도 속이 살고 체면경우 차라는 사람인가 보다고, 마음으로 대견히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무척은 고집이 세구, 자존심이 많은가 봐요...”

진숙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니까, 부친은 껄껄웃으며,

“애 그 높 별놈이로구나. 사내놈이 그런 맛도 있어야 하겠지만, 넌 그 높 기증에 휘둘러 지내는 모양이로구나? 하고 규상이를 탁 치는 소리를 하여 보았다.

“내가 뭐, 뭇뭇에 놀려지내오 성질이 끝끝한 것을 아니까 아무쪼록 신겨주려구 슬그머니 소리없이 주고 온거예요.”

봄 비

尹石重 謠曲
尹克榮 曲

1. 봄 비 는 보 들 보 들 보 드 라 은 비
2. 봄 바 는 파 들 파 들 보 는 은 비
인 삼 물 녹 신 녹 신 녹 여 주 는 비
새 삭 이 과 듯 과 듯 돈 아 나 는 비
봄 비 는 무 력 무 력 기 가 크 는 비
애 들 이 보 들 보 들 맛 고 가 는 비



규상이가 분연히 자기도 지지 않는다는 변명을 한다.

“허허허. 네 말도 옳아!”

부친은 신기가 더 좋아간다.

“기위 말이 난 것이니 다시 갖다 줘라. 주려던 걸 도루 받을 수야 있나.”

하고, 부친은 얼마쯤 전보다 동정이 가는 말눈치였다.

“저 싫다는 것 갖다 주긴 필 갖다가 바칠구. 사람이 끝판한 데두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고생주며

너지.”

규영어머니가 비로소 말참견을 하였다. 친정 동생이 생각나서 그런 남 출 운동화가 있거던나 달라고 하고 싶기도 하였지만 참아 그런 말은 입에서 아니 나왔다.

“그두 그렇지만...”

하고 부친은 어머니 말도 옳다고 받아주며,

“...사람이란 경우없이 조르고 달라면 밭살스럽다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제 앞가림은 제가 한다고 바당기는 사람은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 기위 주려던 거니 대수문 것은 아니지만, 갖다 줘라 넌 갈 것 없구, 오 앞이라니 명순이 지켜 보내 줘.”

부친은 약주집이기도 하지만 열심으로 갖다가 주라는 말에 규상은 좋아라하고, 득의만면하여,

“명순아!”

하고 호기스럽게 소리를 친다.

—다음 호에 계속—

생물의 생체 꽃을 나누어 보면

진 환

이에서 따 모으는 일을 합니다.

죽에는, 생김새나 크기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떤 꽃은 이 네 조각이 다 갖추어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가령 "골풀" (등심초)의 꽃은 이렇다고 나타난 꽃잎이 없습니다. 꽃의 생명이 라고 할만한 꽃은 꽃가을 찾아 왔을 때에, 반드시 땅을만한 자리에 있 하 면 이 것이 없으면 새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운 식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까닭입니다.

꽃을 따서 잘 살펴 보십시오. 대개는 꽃이 네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그리고 날날의 조각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나사 모양과 같이 되어서 날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차례로 그 이름을 들어 보면,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들입니다.

꽃받침은 대개 초록빛 같이어서, 얼른 보기에 꽃은 잎과도 비슷합니다. 꽃이 아직 봉오릿적에 보호해 주는 것이 그의 구실이어서, 밤이거나 추운 날씨에 꽃이 피어 있을 때면 이것을 싸 줍니다. 그러나 덩이뿌리의 꽃, 가령 "나리꽃"이나 "튜우립" 같은 것에는 꽃받침이 있기는 하지만 뚜렷하지 못하며, 그것은 증기와 같은 흙배기르 되어 있습니다.

꽃이 가장 예쁜 때는 꽃잎입니다. 곤충을 부

르는 것이 그의 일로, 향기로운 냄새가 또한 곤충을 끄는비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지 모릅니다.

꽃은 대개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 꽃잎의 수가 같고 다른 부분도 제각기 다를 경우면 한 저페르 취급되고, 또한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꽃밥—곧 꽃가루 주머니를 끝에 매단 가느다란 꽃실입니다. 익으면, 주머니는 터져서 꽃가루의 날아온 날가 갑니다. 꽃을 찾아 온 곤충은, 몸에 꽃가루를 묻질터 바른채 꽃에서 꽃으로 그것을 나릅니다.

꽃 한복판에는 암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세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씨알의 주머니, 즉 씨방이 있고, 그 위에서 암술대라고 하

는 가느다란 줄기가 벌어져서, 그 끝에 암술꼭지라고 하는 전두전두한 사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암술꼭지는 곤충이 꽃을 찾아 왔을 때에, 반드시 땅을만한 자리에 있 하 면 이 것이 없으면 새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운 식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까닭입니다.



다음달치 • 잎은 어떻게 자라나?

봄을 맞이한 창경원의 동물들

이미 봄입니다. “소학생”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서울의 동물원, 아니 창경원의 소식을 재빠르게 알려 드리자, 우리 편집부에서는 정순일군과 카메라맨(사진사)을 창경원에 특파하였습니다. 정군은 지금 서울

“소학생”편집부 여러분의 부탁을 받고, 창경원을 찾았을 때는 봄 빛이 물들려 하는 3월 초순, 이느날 오주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니, 걸 양쪽에 푸욱 늘어선 뽕나무는 제법 봄이라고 별칭이 생기되어 보였습니다. 그 걸으로는 물줄기가 돌돌거리고 지나갈 뿐, 새소리 하나 없었고요했습니다.

식물원으로 먼저 갈까, 동물원으로 먼저 갈까 하다가 우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직원들이 원숭이를 데리고 화롯불을 쪼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찾아 온 뜻을 말하니, 한분이 반가이 맞아 주며, 몸소 안내하겠다고 나서주시었습니다.

맨처음 만난 것은 소리개입니다. 봄벌이 따스한지 소록소록 줄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철망에 걸고 “우우”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고 부시시 눈을 뜨고 가웃하고 우리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우리 “소학생”잡지를 창간호부터 애독하고, 가끔 우리 일을 도와주는, 말하자면 여러분의 선배라 할 수 있습니다. 정군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전하나 보기로 합시다. (편집부)

“이 새는 제주도에서 싸운 국군이 선물로 보내 준 거죠.” 하고 안내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리 떼. 파악 파악 소리를 지르며 절뚝절뚝 달아납니다. 예전에는 이 철망 속에는 수 많은 새들이 살았던 것인데, 이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떼가 무척 넓어서 지금 사는 새들은 꼭 편한 모양입니다.

“저 곡이 피아란 오리는 잉글랜드에서 온 거구요, 몸이 흰 것은 중국 북경에서 온 종류입니다. 맴시는 꽤 있는데 목소리가 짙병이죠.”

“하하하하. 벨베르 치마를 입은 페스트군요.”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하였읍니다. 기러기 - 북쪽으로 날아가지 못한 기러기를 그 안에 보았습니다. 어쩐지 초라한 꼴을 하고, 우리를 보자 닥아서서 무엇을 달라는 듯 입을 쭉긋거립니다.

원숭이들은 여전히 인끼가 있었습니다. 까불고 뛰고 짹짹거리고 야단들입니다. 여기만은 사람이 잔뜩 모여 서서 무엇을 던져 주고 놀리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안내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 원숭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미국사람은 먹은 것을 많이 주고 귀여워 하지만, 우리 나



(이 대통령께서 기증하신 노두)

라 사람은 꽤나 으르레는 사람이 많은 까닭이라나요. 사람보다 더 리털어 세 개 꼬자탄다는 원숭이를 너무 덧드리지 마십시오.

“저어기 있는 것이 이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노루입니다.”

과연 노루 세 마리가 바위 뒤에 숨어서 이쪽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국군이 잡은 것을 대통령께 바쳤더니, 대통령께서는 허허분을 위하여 동물원에 선사하신 것이랍니다. 겉은 많지만 몸맵시가 말쑥하고 키가 경중하며 매우 깨끗합니다. 퍼 걸음이 타르다고 합니다.

그 옆 우리에는 사슴이 한 30마리가 랑 때를 지어 쪼옥 열드려서 발을 쪼이고 있습니다. 이 야기를 들으니 개성 삼팔 경에서 피난을 온 것이라 합니다.

인삼 과 먹고 지낸 사슴이 섞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텅텅 빈 철창들입니다. 표범이랑, 호랑이랑, 늑대랑 물뚱뚱이랑 다들 어디 갔으며, 또 인제나 들어설는지요. 더욱이 허허분이 좋아하던 코끼리가 그리웠습니다.

이것은 다 해방 전에, 일본 사람들이 공습이 무서워 죽여버린 것인데, 해방 후, 다시 채워놓을 때야 구왕궁에 돈이 없어서 구해 놓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은 두마리 보았습니다. 두 마리가 활활하게 있습니다. “소학생”에 실렸던 “모오구리”에 나오는 발루를 연상하였습니다.

먼저 있던 곰은 우물물을 먹으려던지, 우물에 비춘 제 얼굴이 이상했던지,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빠져죽었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도 그럴 밖에, 너구리에게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낮잠을 자는 건지, 무엇을 궁리하는 건지, 사지를 꼼짝 않고 요지부동입니다. 이 너구리들은 언더우드 박사께서 선사한 것이라 합니다. 그 곁에 그릇이 놓이고, 그릇 속에는 시뻘건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육식 동물은 고기를 주구, 그 밖의 동물은 콩, 벳짚, 보리, 비지 같은 것을 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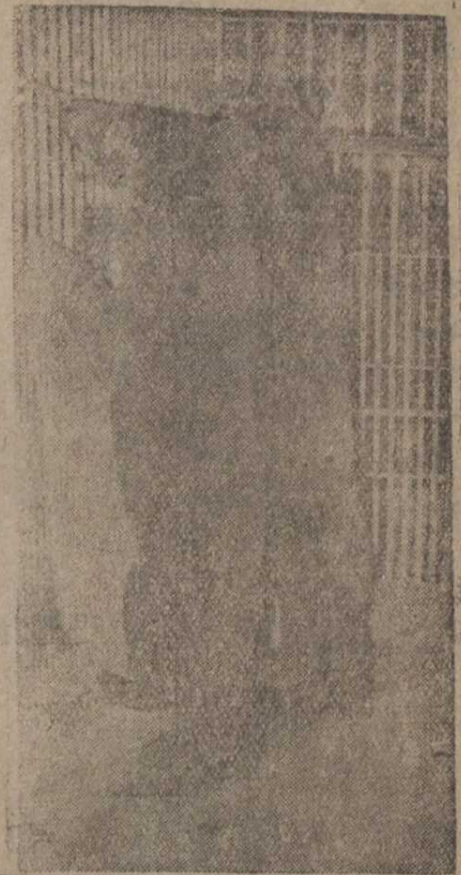
하고 안내하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제 같이 고기 값이 비쌀 때에, 걸 어떻게 다 텅니까?”

“할 수 없죠.”

하고 빙그레 웃으십니다.

그 옆에는 여우가 산다기에 가 보았더니, 추위를 몹시 타서 그런지 굴 속에 들어앉아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니다.



(서 있는 곰)

나는 그 옆의 산패지를 보았습니다. 산패지놈은 무엇 때문인지 열심으로 구석의 흙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편에는 연방 왔다 갔다 수선을 텅니다. 옛날에 “마루 밑의 장사”라는 이 산패지는 과연 산을 떠나서 철창에 갇히고 보니 전혀 맥이 풀린 모양입니다.

산 토끼 토끼야……의 킨토끼, 점정 토끼, 합해서 일곱 마리가 햇볕을 쬐이며 입을 오물거리고 있습니다. 흔히 보는 토끼지만은 이렇게 동물원에서 수효를 채느라고 있는 것을 보니 더 예쁜 것 같았습니다.

인제는 온실에 남아 있는 동물들만 남았습니다. 나는 식물원쪽

으로 슬슬 거닐었습니다. 벌써 소
학생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여
기 저기 보입니다. 양지쪽에서 잡
지를 읽는 사람 그네를 뛰는 사
람, 숭바꼭질을 하는 사람……참
으로 즐거워보입니다. 봄바람에
관물결 치는 연못을 지나서 식물
원 온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자 오래간만에 그윽한 꽃 향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온실
동물원에 들어섰습니다.

“말 잘하는 앵무새라더니,

(한가로운 오리배)



주 순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혀 있어서
독기가 나는 모양이지요? 저
를 위해서 가둔 것은 모르구선
……그런데 저 새가 저절로 날

(철면조)



아들어왔다는 파랑새 아십니까
? 잘 자라나요?”

“보시다 싶이 아주 썩썩합니
다.”

가까이 가보니, 파랑고, 팔장고
누렇게 이상야릇한 새가 두 마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닭과 똑 같은
모양으로 모이를 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는 철면조를 보았습
니다.

안내하는 분이 손을 들어 부르
니까 마치 길들은 닭처럼 쫓아와
서 고개를 흔들입니다. 울릉불통한
머리를 꽤 거북하게 더듬거리니
까, 그 때마다 턱 밑에 달린 붉
은 빛도 더듬거리입니다.

이미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
래서 그런지 공작도 오리도 모두
기어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잘 있거라, 다시 보자 동물들,
여러분이 만족할만큼 동물이 들
어차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여러
분이 좋아하는 동물들입니다. 서
울에 계신 분은 다 한 번씩은 찾
으시겠으나, 지방에 계신 여러분
도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이
동물원이 어서 빨리 훌륭한 동물
원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정 순일)

저 앵무새도 말을 합니까?”

“하고 말고요. 아 그런데 가까
이 가지 마십시오. 물니다. 보
세요, 철사로 짠 새장까지 들
어듣지 않았나.”

하얀 깃털에 노오란 머리털이
보거 좋게 어울리는 앵무새. 꾀꾀
에 어디에 그 포퓰한 성질이 있
는 것인지.

“그래두, 날씨가 좀 더 따뜻하
면 밖에 내놓지요. 그러면 아

아
협
그림
애
기
책
일
품
가
지

홍부와 놀부	김	용	환	그림 · 값	150원
손 오 공	김	용	환	그림 · 값	150원
보 물 섬	김	용	환	그림 · 값	150원
피 터 어 팬	김	의	환	그림 · 값	150원
어 린 예술가	김	의	환	그림 · 값	150원
절리버 여행기	김	의	환	그림 · 값	150원
로빈손 · 크루소	정	현	웅	그림 · 값	150원

아 협 발행 ★ 을유문화사 · 문장각 발매



문 제 (8) (시간 20분)

(지도)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 위원 윤 태 영
 문교부 교과서 편찬 위원

◎문제의 목표

이 문제 역시 글을 읽는 힘을 보는 문제로서 몇 가지 구절을 앞뒤로 하여 뜻이 통하는 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글 구절을 앞 뒤로 하여 몇

번 읽어보는 동안에 스스로 만족할만한 글이 될 것입니다.

국어 공부의 한 가지이지만, 있는 글을 뜻이 통하게 하는데 재질을 이룩하는 힘을 키르는 것이 됩니다. 다져 말하면 창작하는 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설 명

다음 구절을 그 구절 위에 있는 () 표에 차례를 써서 바른 글을 만드세요. 이런 종류의 글을 빨리 알려면 먼저 첫째 구절과 끝의 구절을 일론 찾아 내기로 하십시오. 그러면 쉬울 것입니다.

보기 (3) 학교를 (1) 저는 어제 (4) 결석 하였읍니다. (2) 병으로

그러면 다음 구절을 어떠한 차례로 이으면 뜻이 통하는 글이 되겠습니까?

[1] () 민족은 문화(文化)가 발전(發展)되고,

() 행복(幸福)스럽게 지내었다.

() 이 지구 위에서

() 글을 가진

[2] () 마소를 갖 곳갈 석워 밭막이나 다르랴.

() 사람이 되어 나서, 읍지 곧 못하면,

() 읍은 일 하자스랴.

() 마을 사람들이,

[3] () 이 퇴계 선생은 어려서부터

() 그 감화(感化)가 멀리 중국과 일본에 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 마침내 동양의 모든 학문을 거두어 크게 이루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 학문을 기리고 그 덕을 우러러보아,

() 슬기 있고 총명할 뿐 아니라, 생물이 곧고도 너그러우며, 더욱 학문을 많이 닦아서,

[4] () 인과 정심을 근보(근본)로 삼으셔서,

() 공자 님은

()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다.

() 예법을 따라 서로

[5] () 감격을 잊지 말고 길이

() 나라를 찾고 성명을 찾음

() 우리는 이제

() 이것을 보충할 작오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6] () 이어 진 봉주마져 선종공에서 해를 만난 뒤로는 나라의 세력이 오직 이 씨 일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 작은 우리 나라가 큰 나라를 친하는 죄목으로 죄 역을 몰아 죽이고,

() 가장 벽관 이가 최 영과 정 봉주였으므로 항상 그들을 없이할 기회를 엿 보고 있다가,

() 이 성제로서는 고려의 여씨신하 중에

[7] () 세종 대왕은 32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 누구나 다 대왕의 정덕을 높이고 공경하지 아니한 이가 없다.

() 근세 조선의 가장 찬란한 황금 시대

를 이루었고 그 은택은 길이 후세에
까지 끼쳤으므로,

- () 학 회, 허 주, 김 중서, 최 윤덕 등
문무의 어진 신하를 써서 문치와 무
공에 크게 힘쓰자

【8】 () 그 숙부 되는 세조가 불의의 뜻을 품
고

- () 정치에 있어서는 많은 공적을 남기었
다.

- () 세종 대왕의 뒤에 문종을 거쳐 단종이
서자,

- () 단종을 들어 내고 자기가 스스로 임
금이 되어,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
지마는

【9】 () 거북선과 그 밖에 군함 85 척을 끌고
나가 싸워 5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
지

- () 다 결합 이르 앞서부터 준비한

- ()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 () 임진 년에 왜군이 침입하자, 전라 좌
수사로 있는 이 순신은 인격, 지혜, 용
맹을

【10】 () 노량에서 이 순신 장군에게 불격을 받
은

- () 애석하게도 이 순신 장군이 싸움에 탄
환을 맞아 19일 새벽에

- () 왜군은 군함 200여척을 잃고 도망하
였으나,

- () 54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1】 () 우리 나라는 세 면이 바다로 싸여 있
어서 가지각색의 수산물에 많이 난다

- () 여러 가지 종류의 수산물이 많이 난
다.

- () 더운 해류가 다 흘러 들어오는 까닭에
- () 특히 동해는 찬 해류와

【12】 () 도가니들을 만드는 데에

- () 흑연은 연필 선, 전극(電極), 녹 슬는
것을 막는 데에 쓰인다.

- () 또 난로 같은 것에 철하여

【13】 () 가벼운 메다가 대단히 강해서,
() 이것은 알루미늄, 망간, 마그네슘

- 의 셋을 섞어 녹여 만든 섞음쇠로
서,

- () 섞음쇠의 하나로 “듀라루민”이라는
것이 있다.

- () 비행기 만드는 데에 많이 쓰인다.]

【14】 () 공기 중의 질소를 원료로하여

- () 암모니아, 그 밖에 여러 가지 질소의

- ()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데에 성공하였
다.

- () 이것을 “공중 질소 고정법”이라고 한
다.

【15】 () 큰 전자석이 쓰인다.

- () 철공장에서는 쇠덩어리를 나르는 데
에

- () 큰 전자석을 쓰며

- () 광산에서는 철광석을 끌라내는 데에,

【16】 () 약 6357Km이고,

- () 지구 중심에서 양극까지는

- () 중심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는 약 6378
Km이다.

【17】 () 1도는 각각 60분으로 나누어 있다.]

- () 영국 런던에서 동쪽으로 126도 59분

- () 적도에서 북쪽으로 37도 33분 되는곳
에 있다는 뜻이다.

- () 서울의 위치가 동남 126도 56분 북쪽
37도 33 이라하는 것은;

【18】 () 윤년으로 한다.

- () 서력 기원, 연수가 4로 나머지 없이
나누어지는 해는

- () 그러나 서력기원 연수 100으로 나누
어지는 해 중에서

- () 400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해는 평년



아 협
상타기

작문과 동요

다섯번째
대모집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아협”에서는 다섯번째로 여러 분 소학생들의 구슬 같 은 작문과 동요(동시)를 모집합니다. 글이란 그리 어려운 것 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거짓없이 적으면 그것 이 바로 훌륭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작품이 많 이 나올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꿈아 주실 선생님은—장 지영(張志瑛)·이 희승(李熙昇)·피 천득(皮千 得)이 병기(李秉岐)·박 영중(朴泳鍾)·윤 석중(尹石重)·조 풍연(趙 豊 衍)—일곱분입니다.

☆알아 두실 것☆

- 자격은 현재 남한에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소학생이 자기 혼자서 지은 작문과 동요(동시)에 한합니다.
- 제목은 마음대로 하고 길이는 작문에 한하여 1,000자 안으로 써야 합니다.
- 보내시는 작품에는 자기 이름과 나이, 학교 이름 과 학년을 꼭꼭히 적어 보내십시오.

☆상☆

- 1 **록동**—2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 금 5,000원
- 2 **우등**—1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 금 2,000원
- 3 **입선**—입선된 분 전부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1,000원
- 4 **학교상**—훌륭한 작품을 많이 내 신 학교에는 따로 학교상을 드리겠습니다.

4283년 2월 1일

아 협

- 보내실 곳 서울市 鍾路 二街 永保빌딩 兒協懸賞 係.
- 작품은 되도록 학교에서 모아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감은 4283년 4월 20 일까지 도착되도록
- 발표는 4283년 5월 5일 각 신문과 “소학생” 6월 지에.
- 응모 작품은 일체 돌려 보내지 않으며, 당선 작 품의 판권은 “아협” 소 용로 합니다.

(平年)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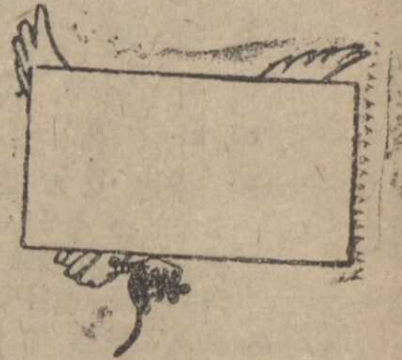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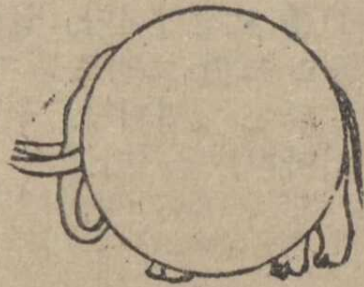
- [19] () 밝기는 9분의 1이 된다.]
- () 거리가 2 갑철이 되며
 - () 등불에서 밝혀지는 면까지
 - () 그 면의 밝기는 4 분의 1이 되고 3 갑철이 되면
- [20] () 같은 수를 더하여도 그 양 쪽의 크기는 같다.
- () 등식은 같음표 양 쪽에,
 - () 그 양 쪽의 크기는 같다.
 - () 또 양 쪽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문제 (7) 의 해답 3 월 치

- | | |
|----------------------|----------------------|
| [1] (5) (6) (1) (2) | [12] (3) (4) (2) (1) |
| (3) (4) | [13] (1) (2) (3) |
| [2] (4) (3) (1) (2) | [14] (4) (1) (2) (3) |
| [3] (2) (1) (4) (3) | [15] (3) (2) (1) |
| [4] (4) (3) (2) (1) | [16] (2) (1) (4) (3) |
| [5] (3) (1) (4) (3) | [17] (3) (2) (1) (4) |
| [6] (2) (1) (3) | [18] (2) (1) (4) (3) |
| [7] (3) (2) (1) | [19] (1) (4) (3) (2) |
| [8] (1) (2) (3) (4) | [20] (3) (2) (1) |
| [9] (3) (2) (1) | [21] (2) (1) (3) |
| [10] (3) (2) (1) | [22] (1) (5) (4) (3) |
| [11] (1) (4) (3) (2) | (2) |
| | [23] (2) (3) (1) |
| | [24] (3) (2) (1) (4) |



애독자 아협 상라기



문제 그림 위에 종이쪽이 올라
앉아서 잘안보입니다. 무엇이
무엇하는 그림일까요?

상 1등 10명 학용품 한벌씩
2등 30명 좋은책 한권씩
마감 5월 31일
발표 "소학생" 6월 초

★2월치상라기발표★

바른 대답과 뽀힌분 (18가지)

1등 6명

- 이 광차 (서울 청계 3년)
- 송 형찬 (개성 만별교 3년)
- 이 인석 (장호원 일구 8)
- 김 진 (서울 청계교 6년)
- 김 현석 (서울 식은 상암중부부)
- 양 길자 (서울 산방교 6년)

2등 10명

- 전 애경 (서울 을지로 7가 125)
- 김 정규 (서울 효창교 4년)
- 강 석연 (서울 정구교 5년)
- 강 진수 (서울 식은 상암중부부)
- 안 병용 (서울 효창교 4년)
- 양 정자 (서울 산방교 4년)
- 백 오현 (서울 식은 영업부)
- 이 원우 (장호원 제일교 5년)
- 강 용건 (서울 봉래교 6년)
- 이 병수 (장호원 제일교 대서분교 4년)

이번에는 문제가 어려웠는지 옳오한 수
도 적었고 바로 맞춘 분도 적었습니다. 그
래서 1등이 겨우 6명 2등이 10명 밖에
활하지 않았습니다.

(편집부 현상계)

가정마다 있어야 할 책!

어린이 한글책

윤석중 꾸밈·최수섭 그림

5도 색색이 그림·논판 36면

책 값 200원

아협 발행★분장각 발매

자치회 원고 보내실 때

각학교 자치회의 이야기가 많
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개 자치회
의 순서를 적어보내는 분이 많습
니다. 이 순서는 별로 소용이 없
고 그자치회의 특징, 자치회의 조

직 또는 자치회에서 한 큰 사건
같은 것을 적어 보내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개
인이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자치
회에서 의논하여 누구든지 대표
자의 자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편집부)



장편
소설

이름 없는 별들 (8)

정인택
(그림·정현웅)

제7장 아이들의 힘

(1)

갑주는 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셋길로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며 갑주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반 고장에서 새로 들어온 아이라고 자기만을 따돌리는 상스러, 섭섭하기까지 하였다.

끼리끼리 모은 돈 5천 원을 회봉이네 집에 갖다 주고 나서 서로를 헤어질 무렵에,

“참, 너이 아버지 왜 학교에 안오셨니?”

표마 태진이가 불쑥 이런 것을 물었다.

교장실에서 열린 회의에 갑주 아버지가 빠진 것을 그제서야 아이들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다.

갑주는 무안을 당한 사람 모양으로 얼굴을 붉혔다. 동무들이 자가 잘못을 태내는 듯만 여겨져서 갑주는 얼른 대답을 못했다.

“통지가 안감거지, 뭘.”

풀이 죽은 갑주가 딱했던지 종호가 이렇게 가로막아 주었으나, 태진은 그 뜻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통지는 무슨 통지……오늘 회가 뭐 정말 후원회냐? 정말 후원회는 언제 따루 연대. 오늘은 그 준비회니까, 통지 안내구 모인 거야.”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갑주의 처지가 더욱 곤란해졌다.

갑주는 한숨 생각한 끝에,

“우리 아버지만 안오셨어?”

창수 아버지두 안오시구…”

이렇게 말해 보았으나 말 끝

을 뱉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두, 이 동네서 너이 집이 제일 부자 아냐?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종호가 또 얼른 그것을 말했다. “인제 고만 뒤! 오늘 회에 뭐 꼭 나와야만 되냐?…그런 거 버덤두, 아까 밀려든, 넌 언제 가져오련?”

“무슨 돈?”

“저금 낸다는 거 말야.”

“으응, 아무 데라두…”

“그럼, 내일 아침에, 아까 거기서 또 만날까?”

“그래, 갑주두 그리 올테야?”

갑주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그리고 얼른 동무들과 헤어지고 만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갑주는 자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제일 먼저 학교에 뛰어가서서

★ 이름 없는 별들 ★

지금까지 이야기 줄거리

서울 문밖 어느 국민학교 마당에서 영화를 놀리게 되었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불안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길기 하늘을 찌를 듯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튿날 구경 갔던 희봉은, 여러 어른 틈에 밀리어, 쓰러져 채이고, 밟히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누가 불을 놓았는지 모르나 태진이 이야기로 일본놈이 파묻고 간 폭탄이 터져서 불이 난 것이라고 한다. 그 때 구경 갔던 아이들이 수상하다 하는 말을 하였을 때, 창수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

불에 타버린 학교는 몹시 쓸쓸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교생이 학교에 모여 선생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다. 다리를 다친 희봉은 아직도 상처가 가지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러 갔다.

먼지투성이 흙투성이 속에 서, 나쁜 공이 상처로 들어갔던

지 그날밤부터 희봉은 다시 열이 오르고 다리가 뒤틀어서 문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희봉이 병세가 매우 좋지 못해 다리를 잘라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들은 창수는 그냥 까무러쳐 꺾 쓰러졌다.

그 후 아이들이 서로 의논해서, 그리 너그러하지 못한 희봉이 집 형편을 도와 주려고 서로 돈을 모아 가기로 했다. 야속한 곳에 갑주, 준호, 옥순이, 태진이, 다 왔는데 창수는 앓는다 오지 않았다. 네 아이들은 학교 마당을 건너서, 큰 길로 나서려 하는데 문득 교장실에서 회의하는 말 소리에 발을 멈춰 교장실 창문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들었다.

개학 날이 박두해, 학교 재건문제에 교장선생님과 여머부형들은 토의했었는데, 학교는 새로 세우기로 하고, 비용문제도 학부형들이 열성껏 채지, 소, 논 같은 것을 팔아서라도 부담하겠다는 말에 갑주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저도 저급한 3천원을 다 내놓겠다고 소리쳤다.

장을 서 주셔야 갑주는 동무들 앞에 큰 소리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온 동네가 통털어 학교 재건을 위해서 열성을 보이고 있는 이 때, 왜 아버지만이 혼자 모르는체 하고 앉아 계실까? 갑주는 그것이 분하기까지 한 것이다.

책 볼 생각도 안나고, 놀러

나갈 생각도 없었다. 갑주는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턱에 손을 고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당 쪽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나더니,

“갑주 있니?”

하시면서 창 너머로 어머니가 방안을 들여다보시며,

“웬 일이나, 오늘은 이렇게 일찍 들어왔으니……”

희한한 일도 많다는 뜻이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으나 갑주는 대꾸를 안했다. 여전히 서두룩해서 앉아있을 뿐이다.)

“더웁지두 앓으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니? 나와서 수박 먹어라. 우물 속에 채 넣으니……”

여기까지 말씀하시다가 어머니는 비로소 갑주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떠도는 것을 발견하시고 근심스러운 듯이 기웃거리시며,

“갑주야 왜 어디 아프냐?”

“그러나 갑주는 대답을 안했다.”

“갑주야, 어디 아파?”

어머니가 또 한 번 이렇게 물으셨을 때, 갑주는 얼굴을 번쩍 쳐들고,

“아무데두 아프지 않아요. 어머니 캐애니……”

통명스럽게 내쫓는 갑주 눈에 눈물이 글썽하였다.

(2)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군요……”

저녁을 먹고 나서 뜰 앞에다 의자를 내놓고 앉아 계신 갑주 아버지 옆에서 서증을 드시던 갑주 어머니는 아까 갑주가 들려 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나서,

“...그랬는데 거기 빠진 이가 아버지 뿐이라구 아까버림 저렇게 팔이 잔뜩 나서 저녁두

안먹지 않아요?”

관장 너머로 멀리 동네 쪽을 바라보며 맥없이 서 있는 갑주 등을 가리키셨다.

갑주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며 한참 생각에 잠기셨더니, “갑주야!”

이윽고 입가에 웃음을 띄시고 갑주를 부르셨다.

“네!”

“갑주는 돌아선채 대답만 했지, 이리로 오지를 않았다.”

“갑주야, 이리 와?”

아버지가 약간 음성을 높이지는 바람에 갑주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떨어뜨린채 아버지 앞에 와 섰다. 아버지는 앞에 놓인 빈 의자를 가리키시며,

“거기 앉어라!”

하시고는 한참 갑주 얼굴을 바라다보시더니,

“이 녀석아, 무슨 화 날 일이 그리 많으나. 그까진 일두 저 녀두 안먹구……예끼, 못난 자식 내가 학교에 안간진 그런 화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안간거지 그러면 그렇다구 얘기를 해야 하지 않니? 허기야 내가 잘못했다. 진작 물 냈을 적에두 교장한테 인사 한번 안 갔으니까, 내 불찰이기가 허지. 그렇지만 아직 이리로 이사 와서 사정두 잘 모르구 또 바쁘기두 했구,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갑주 아버지는 여기까지 말 씀하시더니,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꺾꺾 웃으시며,

“말하기 어려운 일두 아니구, 내게 와서 얘기하면 될 일이지, 그래 이 녀석아, 혼자 화를 내면 어찌자는 거냐? 내 일이라두 내가 학교에 가서 교

장선생님 만나면 되지?”

갑주는 이 말을 듣자 린쩍 고개를 쳐들고,

“아버지 정말이세요?”

지금까지 찌푸렸던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돌았다.

“뭐?”

“아버지, 정말 내일 학교에 가지겠어요?”

“가구 말구. 이런 때 나 혼자만 가만히 있어서 쓰겠니?”

갑주는 땀안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웃지도 않고 허리를 꾸부렸다. 아버지 말씀이 갑주는 정말 고마웠던 것이다.

옆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도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시며,

“참 아이두……인제 화 풀렸겠구나, 그럼 어서 가서 저녁이나 먹어라!”



“네……아이, 배고파 혼났네!”

갑주는 싱긋 웃고나서 제 방 쪽으로 달음질쳤다. 그 뒷모양을 무그림이 바라보시며 어머니는 아버지와 마주 의자에 앉으시더니,

“갑주가 참……달라졌어요!”

감개 깊은듯 말을 꺼내셨다.

“어떻게?”

“이리루 이사 오걸 참 잘했어요. 동네 인심두 좋구 공기두 맑구 하지만……그런 것 버텨두 갑주가 맘을 잡았으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예요?”

“그것만은 천만다행한 일야. 맘만잡았소? 몸은 얼마나 튼튼해졌다구……늘 상을 찡그리구 지내던 아이가……”

“글쎄 말예요. 인제는 나뉠 한지름 잊었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잠깐 말을 끊으시더니, 얼른 정색을 하고 아버지 얼굴을 똑 바로 쳐다보시며 말을 이으셨다.

“문안에 살 적에는 그렇게 저한테 잘해 줘두 통 나를 딸흔지 않더니, 요새는 나를 정말 어머니버텨두 더 생각하나 봐요. 그 애 맘이 내게로만 향

해 준다면 나는 죽어두 좋구 생각했었어요. 정말이지 전에는 그것이 야속하기까지 하더니, 오늘은 막 트집을 부리구 응석까지 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나 고맙구 반가운지…… 갑주 청이래면 나는 무슨 청이든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갑주한테 매수당한 심이로구려?”

여러 가지로 불편은 많았으나 이 동네로 이사 와서 무엇보다도 부부의 마음을 밝게 해 준 것은 갑주가 다시 순진한 소년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친 어머니를 잃고 난 후부터 성격이 달라진 갑주는 새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에도 좀체로 동하지를 앓았었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이야, 참으로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일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 동네를 위해서 이 동네 소년들을 위해서 갑주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결심이였다.

저녁을 먹고 난 갑주의 노랫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왔다. 흥에 겨워 부르는 노랫소리였다.

갑주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굴을 맞대고 말없이 빙그레 웃으셨다.

(3)

갑주 아버지는 학교 신축비의 3분지1을 혼자 부담하겠다고 자진해서 나섰다.

이 소문이 온동네에 싹 퍼져자 모두들 눈이 둥그래져서,

“그거 참 장현 일이로군!”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걸수야 있나, 우리들두 어디 힘자라는 데까지 애써 봅시다.”

“아암, 그렇구 말구……”

칭찬이 자자했고, 거기서 힘을 얻어 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갑주의 어깨가 으쓱했다.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동네 아이들과 어깨동무하여 놀 수 있는 것이다. 이 통에 종호 패들도 덩다라 배 활개를 치고 다녔다.

그러나, 이번에도 창수만이 그 축에 들지 못했다. 창수 아버지만은 여전히 이 소문 저 소문, 다 못들은체 하고, 아무리 여러 번 후원회가 열려도 한 번



도 나가시지
를 앉았다.

창수는 혼
작서 몹시 외
로웠다.

동무들이갈
이 놀아 주지
않는 것은 아
니었다. 창수
자신이 공연
히 자격지심
이 들어 그 때
에 용감히 끼
지를 못하는



것이다. 창수는 마치 어긋자식
모양으로 비굴해질 수 밖에 없
었다. 창수는 또 집에 틀어박혀
혼자서 책만 읽으며 소일했다.

몹시 무더운 날이었다. 창수
는 책 읽기에도 지쳐, 어슬렁
어슬렁 집을 나섰다. 운봉이나
만나서 회봉이 소식이나 물어볼
까.....하는 생각에서였다.

창수가 마약 대문을 나서자,
학교 운동장 쪽에서 아이들의
떠들석하는 소리가 들렸다. 창
수는 무심하고 뒤를 돌아다 보
았다.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하얀 가죽으로 만든 새 공이었다.

공은 발이 닿기가 무섭게 뱅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떠올랐
다. 고무공 같이 가볍고 탄력이
있어 보였다.

—저게 갑주 아버지가 사주
었다는 공이로구나.....

창수는 얼른 그것을 알아채
렸다. 축구선수인 창수는 저절
로 발이 번쩍번쩍 쳐들리도록
뛰어 나가서 자기도 한 번 힘껏
차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창수는 웬 일인지 망서
리지 않을 수 없다. 생각과는 반
관으로 발 끝이 자주 뒤로 돌
아서는 것이다.

창수는 누구에게 들릴까 겁
나는 듯, 얼른 대문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 때였다. 웬 어른이 대문
안으로 쩍 들어서며,

“창수야 아버지 계시냐?”

하고 물었다. 운봉이 아버지
였다. 뒤 따라 종호 아버지도
대문 안으로 들어오셨다.

“아... 안기세요.”

창수는 공연히 당황해서 뒷걸
음질을 치며 떠들떠들 대답했

다.

“안기세요?”

“네.”

“아침에 나가셔서 입때 안뜰
어오셨니?”

“네.”

운봉이 아버지는, 어떡허나,
하는 듯이 종호 아버지를 바라
보시며 잠깐 말이 없으셨다. 종
호 아버지도 몇 번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시더니,

“우리들 멍겨 갔다구 아버지
한테 여쭙구.....이따 저녁 잡
숫구 꼭 줘 우리 집이나 운봉
이네 집으루 오시라구 그래라.
잊어버리면 안돼!”

“꼭 여쭙 말씀이 있다구 그
래 알았지?”

“네.”

창수의 대답은 한결 같이 “네”
였다. 무엇때문에 운봉이 아버
지와 종호 아버지가 오셨는지
를 창수는 잘 알고 있다. 그대
로 여쭈어야 아버지는 흥 하고
코웃음 치실 뿐,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써 한 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 주는 자장노래에
스르르 팔을 베고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 소리 맘이 설레어
반도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 길을 달려 옵니다.



번이 아니었다.

“또 돈 내라는 소리겠지 뭘,
내버려 뒀!”

필경 아버지는 이렇게 쓰아
붙이실 것이었다. 생각하면 창수
의 가슴은 타는 듯이 아팠다.

(4)

창수는 허전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다.

눈 앞이 팽팽 도는 것 같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금방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
고 나온 일이지만 무슨 꿈인 듯
만 싶었지 아무래도 정말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허전허전 걸고 있는 동안에
도 자꾸 눈 앞에 하얀 침대가
떠오른다. 그리고, 살짝 덮여
있는 흙이불 찡그린 창백한 희
봉이 얼굴 또... 그런 것들이 떠
오른다.

그러지 않아도 이불 한 구석

이 쪽 꺼져서, 얼른 보아 알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공
교롭게도 마침 약을 갈아 바르
느라고, 이불을 간호부가 떠들
고 있을 그 때였다. 창수는 무
심하고 희봉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던 것이다.

병실 문을 열고 희봉이 누워
있는 침대 쪽을 바라본 창수는
“악!”

소리를 지르며 나가자빠질번
하였다.

희봉이 다리 하나가 무릎 위
에서부터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희봉이 다리 찢리게 된 것을
모르는 창수는 아니었다. 그러
나 딱 눈앞에 대해 놓고 보니
온 몸에 소름이 쭉 끼치도록 무
서웠다. 그렇다 오직 무서울 뿐
이었다.

단 숨에 병실을 뛰어나왔다.
미친 사람 모양으로 복도를 달
렸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창수는 험직한 얼굴로 얼 빠진
사람 같이 길을 걸고 있었던 것
이다.

“희봉아!!”

창수는 저도 모르게 희봉이
이름을 커다랗게 부르고 나서,
짜증이나할 듯이 두 주먹을 불
끈 쥐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알각 쏟아졌다.

“희봉아, 희봉아!!”

창수는 또 허공을 향하여 그
힘을 지르고, 그리고는 줄달음
걸을 치기 시작하였다.

창수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
까?

창수 자신도 몰랐다. 창수는
무턱대고 걸 난대로만 앞을 향
하여 뛰어갈 뿐이었다.

숨이 차서 창수는 잠간 걸음
을 멈췄다. 고개를 쳐들었다.
뜻 밖에도 신창안 아버지 가게
앞이었다.

외국 이야기 피 보

창수는 무의식중에 아버지가 계를 찾아 뛰어 온 것이었다.
“아버지!”

외마침소리를 지르며 창수는 전방 한 구석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혼자서 장부를 정리하고 계하던 창수 아버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올라가량이 되어 달려드는 창수를 바라보고,

“너, 이거 웬 일이나?”

깜짝 놀라시며 의자에서 일어나, 쓰러지려는 창수를 품 안에 받으셨다.

창수는 그대로 축 늘어졌다. 기진맥진한 듯 눈조차 뜨지 못했다.

눈을 감은채 창수는 힘 없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오냐, 나 여기 있다 정신 차려라!”

“아버지!”

“오냐 애 창수야!”

아버지 품에 안긴채 한참을 누워 있던 창수는 이윽고 자만히 눈을 떴다. 눈을 뜨자 마자 기다렸던 듯이 눈물이 주르르 쏟아졌다. 그러나 창수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안하고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있더니,

“아버지……회봉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회봉이가 어쩔단 말이나?”

“회봉이가 그에 다리를 잘렸어요……다리를……”

“……”

“아버지, 그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어느날 런던 거리에서 술주정꾼이 굉장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3층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양복장수, 밖에서 하두 떠드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하고 창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몸을 더 밖으로 내밀다가 그만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밑에 지나가던 한 노인에게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양복장수는 목숨을 건졌으나 그 노인은 죽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개한 그 노인의 아들은, 양복장수를 살인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양복장수가 일부러 그 노인을 죽이려고 뛰어내렸는지 실수해서 떨어졌는지 배심판들은 물론 재판장까지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뭐? 누구 때문이라니?”

“저 때문예요. 아버지, 저 때문에 회봉이는 다리를 잘렸고 말았어요, 저 때문예요!”

창수는 웬 기운인지, 아버지 품에서 벌떡 일어나 우뚝 책상

얼마동안 모두들 골치를 앓던 끝에, 그때 런던에서도 피가 많기로 유명한 표오지라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표오지는,

“그까짓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노인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양복장수를 세워놓고 노인의 아들보고 그 3층창에서 뛰어내려 양복장수를 죽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원수를 갚으면 속이 시원할까 아십니까.”

재판정에서는 꼭그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감히 3층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고소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일어서더니,

“하……학교 탄 것두 저 때문이구요……”

마치 자기 자신을 매질하듯 외치는 것이었다.

(다음 호로 계속)

우리동부

동시집

봄아 오너라

서울 혜화교 5의7 이 동 열

봄아 오너라, 어서 오너라.
추웁고 어두운 우리 마을에
기쁘고, 따뜻한 봄아 오너라.

짙이고 짙인 눈과 얼음을 녹일 봄,
지들은 나무에 새싹을 여는 봄.
우리 마을에 하루바삐 봄아 오너라.



봄아 빨리 와서

서울 이 경

봄아 봄아 빨리 와서
꽃을 피게 하여라.
꽃이 피면 동무하고
피리 불며 놀게.



봄아 봄아 빨리 와서
푸른 들을 만들어라
푸른 들이 있으면
좋아지 하고 놀게.

무궁화

친안 제삼교 4의3 전 애수

담 밑에 무궁화
고운 무궁화
아침 이슬 받아서
제수를 하고,
방긋 방긋 웃으며
피어 있지요.



수양 버들

개성 남산교 6의3 권 명석

줄 줄 흘리는
시냇가에는 머리풀은
수양버들 서 있지요,
동무 없이 자라난 수양버들은
팔레하는 누나더러
머리 감아 달래지요.

바람이 술 술 불어오며는
팔레가에 춤추는
수양버들이 서 있지요,
동무 없이 자라난 수양버들은
팔레하는 누나더러

연래 빗칠 해달래지요.



내 동생

서울 을지로 6가 18의 77 김 옥 자

내동생은 내동생은
귀엽습니다
언니가 공부하면
저도 한다고
연필 달라
종이 달라 소리칩니다.]

언니가 연필과
종이를 주면
고양이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그림니다.



나의 조카

부여 구룡교 4의1 박 재 호

나의 조카는 모두 다섯
그 중에도 맏애 조카 제일 예뻐요
한 자욱 두 자욱 걸음 걸을 때
다리는 농창 허리도 꺾떡

눈 안에는 검은 동자 구슬 같구나.

가끔 내가 꾸중하면
구슬 같은 눈물 방울
떨어지더니
“엄마” 하고 소리치며 달아난대요.



특 집

우리 동무 봄 노래

박 영 중

봄이 왔습니다. 다음달은 “어린이날”의달. 여려
분의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보다 “어린이날”이면
해마다 “소학생”에서 동요를 모집합니다. 좋은 등
요, 많이 보내주세요. 이달은 봄 노래 특집을 꾸
릴 생각이었으나,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쓸모 있
는 것이 적어서 저으기 섭섭했습니다. 그럼 어떤
동요가 좋은 등요냐 하면,

① 첫째는 아름다운 생각이 잠겼는 등요입니
다. 이달치에 실린 “봄아, 봄아, 빨리 와서”에서,
꽃이 피면 등무하고

피리블며 놀래

는,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이 스뵈는 노래입니
다. 이런 따뜻하고 다정한 생각, 그것이 아름다운
생각의 한가집니다.

② 날카로운 느낌.

남이 느끼지 못할, 그런 날카로운 느낌은 꼭히
기한 말과 표현이 아닙니다. 신기하기보다는 깊은
생각에서 비로소 깨닫는 그런 말과 표현입니
다.

③ 새로운 말입니다. 기령—

봄바람이 술술 불니다.

는 이미 너무 낡아진 말입니다.

이렇게 따져드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럼 가장 빠르게 가르쳐 드릴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

이 한마디에 그칩니다.

봄아 오너라 (이 동열 군)

노래로서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 노래 속에 스렸는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봄아 오너라, 어서 오너라.

여러분도 맘이 시원할 것 같지요.

봄이 빨리 와서 (이 경 군)

끝절은

“언니하고 들놀이 가게”를 “좋아지하고 놀지”로 고쳤습니다. 언니하고 들놀이 간다는 말은 아무런 맛이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수양버들 (전 명석 군)

삼이 따분합니다.

“동무없이 자라난 수양버들”의 동무 없다는 뜻이 재미나서 뽑았습니다.

무궁화 (진 애수 군)

좀 더 재미나게 지을 수 있는 노래를 아깝게도 멋없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내 동생 (김 옥자 군)

아무런 꾸밈도 없이,

자기가 느낀 것을 툭툭 써 둔 것이 맘에 듭니다.

“내동생은”을 두번 거쳐 노래한 것도 좋았습니다.

나의조카 (백 재호 군)

“눈 안에는 검은 동자 구슬 같구나”가 아름답고 모합니다.

예쁜 그림들 좀 봐요! 미술 사전에서 뽑아서 실은 그림이에요

—책방에서 파는—



—국어공부 사회생활공부에도 꼭 필요한 책—

—미술사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다—

학생 미술 사전

★ 미술교재연구회 엮음 ★

값 600원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7 문화교육출판사



☆나오는 동무

- 길 남 이
- 병정인형
- 고 양 이 (벽에 걸린 그림)
- 바 독 이 (벽에 걸린 그림)
- 시 계
- 동네할머니

☆무 대

조그마하고 예쁜 방.
 탁이 열리면 불 꺼진 방에 창
 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서 환하
 다.
 좌우편 벽에는 고양이 그림과
바독이 그림이 마주 걸려 있고
 병정인형은 종을 메고 창 앞에
 서 있다.
길남이는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다.
 시계가 땡 땡 식점을 친다.
 동네 할머니가 달빛 속으로 창
 을 넘어 들어온다.

할머니 (길남이의 침대 앞으로 가
 서) 아유 가없어라. 길남이 병
 이 아직 두 냥지를 앓았구나.
 (바독이와 고양이 그림을 번갈
 아 보고) 조것들이 그냥 머주
 보구서 아옹 다옹 째질만 하
 니간 길남이 병이 깨끗해 질
 수가 있나. 에이 못된것들.
 (다시 창을 넘어서 나간다)
 시 계 (키지개를 펴며) 아 심심
 하다. 언제나 날이 밝노. 아
 달빛이 방에 가득 찼구나.
고양이 (그림 속에서) 야아옹.
바독이 (그림 속에서) 멍 멍.
고양이 야아옹.
바독이 듣기 싫다 요것야.
고양이 듣기 싫은 거 누가 저
 보고 들으래.
바독이 요놈의 것야 너때때 나
 까지 욱 먹지 않아.
고양이 땡, 왜 나때때 지가 욱을
 먹어.
바독이 네가 보기 싫어서 밤
 마다 너 하구 싸우기 때문에
길남이 병이 낫지 않는다고
 지금 동네 할머니두 말하지
 않았어.

고양이 해, 참 우쭐 죽겠네. 외
 나때때 지가 싸워. 지때때 내
 가 싸우지.
바독이 (그림에서 뛰어 나오며)
 머가 어째.
고양이 (그림에서 뛰어 나와 방
 구석으로 피하며) 어찌긴 멀
 어째.
바독이 요놈의 알민거야. 그제
 이 이빨로 한 번 물고 발걸
 로 차면 그냥 꺾 소리두 못
 할게.
고양이 네까진 그 이빨보다 내
 발톱으로 그냥 한 번만 얼굴
 을 갈켜문 눈깔에서 콧구멍에
 서 붉은 피가 펄펄 쏟아지고
 절절 땀 것이.
바독이 어더 재주 있진 갈켜 봐
 라. (고양이에게 달려든다)
고양이 (몸을 피하면서) 웨 이
 때 기운 센척 하고—야옹 요
 걸.
바독이 멍멍. 요 알민 것 요 요
 알민 늑의 것.
고양이 능글맞인 자식 능글맞인
 자식.

바둑이와 고양이가 피하고 쫓
아가고 한참 싸운다.

병 정 이것들아.

바둑이 글썽 너도 육장 그창 앞
에 서서 보지 않니. 저 못된
팽이 새끼를!

고양이 누가 잘못인지 말해 다
우.

병정(두벽 두벽 걸어 나오며) 너
희 들이 다아 니빠.

시 계 나쁘다, 나쁘다. 들이
다 나쁘다. 그
렇지만 재밌어
재밌어.

바둑이 이거 봐,
글썽 조젓이
조 알민 팽이
놈의 눈깔이
꽤니 자꾸 나
를 건너다 보
고저 노려만
보지 않니.

고양이 행 내가
제까진걸, 체,
저 못난 얼굴

을 몇하라 봐, 지가 자꾸 날
건너다 보구서 능글맞게 눈을
즐기지.

바둑이 요것아 알미니깐 그렇
지.

고양이 난 미우니깐 그렇지.
바둑이 네가 먼저 날 노려 보니
깐 그렇지.

고양이 누가 먼저 노려 봤어.
제가 먼저 날 못 먹겠다구 즐
겨 보니깐 나두 노려 봤지.

바둑이 누가 먼저.

고양이 누가 먼저.

시 계 재밌다 재밌다. 심심한
데 싸워라, 싸워라.

바둑이 영, 요 알민놈의 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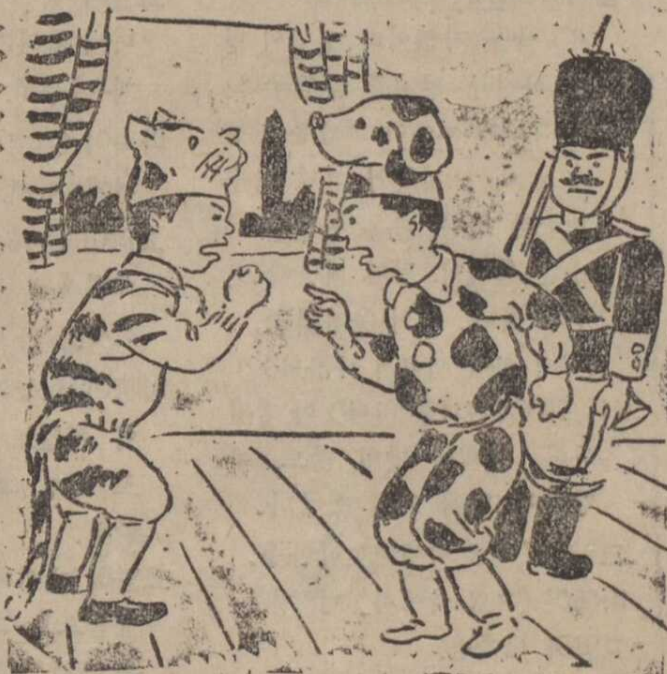
고양이 능글맞인 자식.

바둑이 어째.

고양이 땀벼 봐.

고양이와 바둑이 달라 붙어 싸
운다.

시 계 재밌다 재밌다. 싸워야



시간이 간다. 싸워야 시간이
간다.

길남이가 몸이 피로운 듯 뒤쳐
놓는다.

고양이 (바둑이 얼굴을 막 할키
며)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바둑이 (고양이를 발로 차고 때
리며) 요것아, 요것아. 요 요
요.

시 계 재밌다 재밌다. 싸워라
싸워라.

병 정 (총을 겨누며) 썰너이다.

고양이와 바둑이 싸움을 그쳐
고 갈라 서서 썩근거린다.

고양이 저놈어 자식 그냥 저 저
저놈어 자식을.

바둑이 (병정인형에게) 너도 저
금 봤지. 조 알민 팽이 새끼
조 못된 눈깔을!

병 정 너희 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달이 밝고 좋은 밤, 또

이렇게 좋은 방에서 살구 있
으면서 왜들 싸우는 거냐. 한
방에서 살면서 정답게 지내
야 할 것들이 싸울 하는 것
은 들이서 다 나쁘다.

고양이 저것이 나쁘니깐 그렇
지.

바둑이 조게 알림게 구니깐 그
렇지.

고양이 메 알며 메 알며.

바둑이 조걸 그저.

시 계 싸워라 싸워라.

병 정 (큰 소리로) 시끄럽다.

시 계 (시침일 때고 녀 짐을 처
며) 아 벌써 네 시로구나.

병 정 이 방이 누구 방이냐?
고양이 길남이.

바둑이 조거 팽이, 가짓말만 하
는 조 조둥이두 지금 한 말
은 정말이다.

병 정 그런데 길남이는 너희들
을 어떻게 하니?

고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보
지.

바둑이 멀 네까진 고 알민 얼굴
을 봐, 거짓말야 거짓말야.

고양이 그럼 제까진 저 못생긴 것만 볼가.

병 정 길남이는 바둑이 너두 좋아 하구, 고양이 너두 좋아 하구, 또 인형인 나도 좋아한다. 길남이는 착한 아이다.

시 계 나두 좋아하구.

병 정 그런 길남이가 지금 어 떠냐?

고양이 가엾이도 병이 나서 있어.

바둑이 병이 들어 고생을 하고 있다.

병 정 왜 어쩌서 병이 났는지 아느냐?

바둑이 조것 때문에 조 알민 것 때문에.

고양이 왜 나때문야, 왜 나 때 문야. 저 때문이지 저 때문이지.

바둑이 왜 나 때문야, 네 고 알 민 눈깔이 보기 싫으니깐 그렇지.

고양이 누가 보래 누가 보래.

능글맞게 즐기는 제 눈깔은.

바둑이 보기 싫으니깐 즐기지.

고양이 나두 보겨 싫으니깐 그렇지.

바둑이 누가 먼저 봤어.

고양이 그럼 누가 먼저 봤어.

시 계 짜워라, 짜워라. 제상은 짜워야 재미 있는 거다. 짜워라, 짜워라.

병 정 시끄럽다. 그래 마진 편 벽에 들어 있으면 서로 보는 것이 싫다고 짜워야 한단 말야.

고양이 그냥 보지 않고 능글맞 게 눈을 흘기니깐 그렇지.

바둑이 시끄러, 요 못된 거야.

고양이 메 못됐어, 메 못됐어.

바둑이 조것만 없으면 왜 째을 해.

고양이 나두 네잔 지식만 없으 문 왜 째을 해.

바둑이 (병정을 보고) 난 조결 없애 버릴테다. 조결 없애 버 리문 째두 안하구 째만 안하 문 길남이 병두날게구.

고양이 왜 내가 없어져. 어디 어디 없애 봐.

바둑이 없애려문 없애지 왜 못 없애. (주먹을 쥐고 달려든다)

고양이 어디 어디. (바둑이에게 달려든다)

바둑이와 고양이 또 싸운다.

길남이가 몸이 피로운 듯 또 몸을 뒤척인다.

시 계 짜워라, 짜워라.

병 정 (시계에게) 시끄럽다.

(고양이와 바둑이에게) 싸우 면 쏠테다.

바둑이와 고양이 씨근대고 갈 라 선다.

병 정 너희들이 싸우면 싸울수 록 길남이 병은 더하지 않느 냐. 그래두 자꾸 자꾸 싸울테 냐?

고양이 저 지식만 없으문 안 싸 우지.

바둑이 조것만 눈앞에 없으문 안싸우지.

병 정 그럼 너희들 중에 하나 는 이 총으로 쏘서 없애야 할 것이다.

고양이 조결 없애, 조결 없애.

바둑이 아냐, 조 알민 재수 없 는 걸 없애야 해.

길남이 (잠꼬대처럼) 안된다 안 된다. 아무두 없애문 안된다.

병 정 저봐라 길남이는 너희들 을 하나도 없애면 안된다고



(문) 고양이는 어쩌서 어른 데 서도 눈이 보이냐?

(답) 사람이든지 다른 동물이든 지 무엇을 보려 들면 빛이 없 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람에

게 비하여 고양이는 눈의 초점 을 크게 늘릴 수 있으므로 빛이 많이 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른 데서, 사람은 눈에 들어가 는 빛이 적어서 잘 보이지 않 는 데라도 고양이 눈에는 꽤 많이 빛이 들어가 물건이 보이 는 것입니다. 고양이 눈이 깜 깜 한 데서 번쩍거리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빛이 눈에 집중 되어 그것이 반사되는 때문인 데, 아주 깜깜하다면 결코 반짝 거리지 않습니다.

(문) 비행기에서 뛰어 내릴 제 쓰는 낙하산은 어떻게 사용하 는가?

(답) 우선 낙하산 줄에 몸을 단 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낙하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싸우기만 하구 길남이를 생각지 않으니 너희들은 아주 나쁜 것들이다. 난 너희들을 다 없애겠다. (종을 저는다)

길남이가 침대에서 뛰어 내려 가서 종을 막는다.

길남이 안돼, 안돼, 쪼문 안돼. 병 정 날마다 쌈만 하는 것들 다 없애야 하지 않니.

길남이 안돼, 안돼, 그래두 안돼.

고양이 길남아 저 지식을 없애다우.

바둑이 조건 없애야 해 조건 없애야 해.

고양이 저걸 없애야 해, 저걸 저걸 저 지식을.

바둑이 조눔어걸 없애야 한다.

길남이 너희들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싸울테냐?

바둑이 퇴기 싫은 걸 어째.

고양이 저 지식이 미운걸 어째.

바둑이 요놈어 알면 것아.

고양이 내가 왜 알며 내가 왜 알며.

바둑이 주둥일 찢어 놀래다.

고양이 어디 찢어 봐, 찢어 봐.

시 계 싸워라, 싸워라.

바둑이와 고양이 또 덤벼서 싸운다.

동네 할머니가 창으로 들어온다.

할머니 가엾어라, 우리 길남이.

저것들 때문에 죽이 상해서 병이 들고 났지를 않지.

길남이 할머니, 저 이쁜 것들이 자꾸만 싸워요.

할머니 싸우는게 메 이뿌담.

나 같으면 저것들을 모두 없애 버릴테구먼.

길남이 안돼요. 난 저것들을 보는게 좋아요. 그러구 저것들이 있으니깐 이 방두 꼭 좋지 않아요?

할머니 그렇지만 쌈만 하는 걸

길남이 그래두 없애진 못해요.

할머니 둘 중에 하나만 없애두안 싸우지. 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갈가?

길남이 안돼요, 안돼요. 난 둘이 다 좋아요. 하나라도 없어

지문 안돼도.

할머니 둘이 있으니 언제든지 쌈만 하구, 쌈을 하문 길남이 병이 났지를 않을걸!

길남이 그러니깐 할머니 저것들이 다신 안싸우게 해주세요.

할머니 어떻게 안싸우게 한담.

길남이 할머니는 재주가 많으시니깐 안싸우게 하질 수 있을 거야요. 할머니 저것들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저것들이 싸우는 것만 보면 난 그냥 몸과 맘이 피로워 못견디겠어요.

할머니 그래 길남이 병은 저것들이 싸우기 때문야. 동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엄마가 피로우신 것처럼 길남이가 귀애하는 저것들이 자꾸 쌈질만 하니깐 우리 길남이가 맘과 몸이 피로워서 병이 들었지.

길남이 그러니깐 할머니 제발 저것들이 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좀 이빠요? 쌈만 안하구 저것들이 정답게 놀곤 얼마나 기빠요.

할머니 암 이뿌지. 그럼 길남이 병이 깨끗하게 났구.

산은 접어서 등에 짊어지거나, 또는 허리에 붙여 들거나. 비행기 위에서 뛰어 내릴 때는, 처음엔 들처럼 떨어집니다. 이때에 어느 줄을 잡아다니면, 접었던 낙하산이 풀려서, 활짝 풍선과 같이 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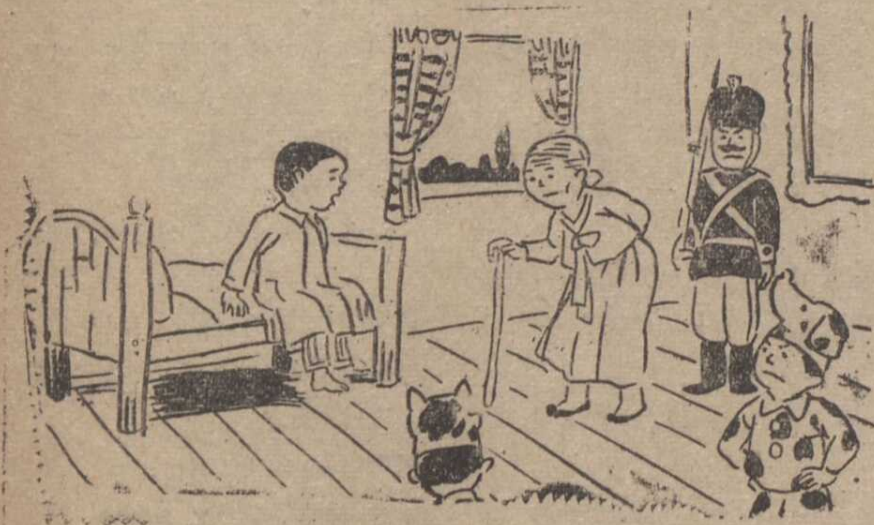
그러하여 1초에 약 4미터의 속도로 떨어지므로, 그 등

안에 뭉에 매었던 줄을 차츰 풀려서 땅 위에 닿기전에는 다만 줄을 잡고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땅에 내리자마자 곧 손을 떼면 안전합니다.

(문) 야구, 축구, 농구 같은데서 "오오씨이"(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올드•보오이 (OldBoy) 에

서 O짜와 B짜를 따온 것인데 흔히 졸업생의 단체를 말합니다. 나이는 먹었으나 그 의기만은 젊은이에 못지 않다는 뜻으로 재교 학생 선수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연대 OB하면 연희대학 졸업생으로 된 팀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시 게 싸우는게 재밌어 안 싸우면 심심해.

할머니 시끄러.

시 게 (시침을 베고 멍 멍 다섯 점을 친다) 아 다섯 점, 줌 있음 날이 밝겠다.

길남이 할머니 정말요 저것들이 싸우지만 않게 해주시면 난 할머니 한테 저 금은로 만든 꽃병을 드릴게요

할머니 호호호호호. 저 좋은 꽃병을?

길남이 그리고 저 은으로 만든 등잔두.

할머니 호호호호호. 저 좋은 등잔두?

길남이 그리고 저 인형병정두.

할머니 호호호호호, 인형병정까지. 인형병정이 없으면, 저것들 짬을 어떻게 말리게?

길남이 짬만 안하문 인형병정 없어두 꽤 좋아요

할머니 그럼 우리 귀여운 길남이 위해서 저것들이 싸우지 않도록 해줄가?

길남이 네 꼭요, 꼭요.

할머니 그리고 참 날이 밝으면 설날이군.

길남이 설예요. 새옷 입는 설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몸이 아프면 새옷두 못 입구 세배두 못 가구.

할머니 그래 저것들이 싸우지 않구 우리 길남이가 몸이 깨끗해서 새옷입구 세배 가고 기쁘게 놀도록.

길남이 네, 네, 어서요.

할머니 그럼 저 길남이가 학교에서 도화 그리는 크레용 있지?

길남이 있어요, 있어요. (크레용을 갖다 동네 할머니에게 준다)

할머니 (크레용을 받고 바둑이와 고양이 그림을 보아서) 조것들이 서로 눈을 즐기고 마주보니깐 짬들이지 조것들 눈질만 다시 그려서 서로 웃으면서 마주 보게 하면 짬을 안할 거란 말야. 이 좋은 방에 같이 살면서 왜 싸울 리가 있담. 자 아 눈을 고쳐 그려야지. (바

둑이와 고양이 얼굴을 웃는 얼굴로 고쳐 그린다)

길남이 아유 저것들이 웃네, 웃는 것 봐, 더 이빠 되네. 아유 할머니두 재수도 많으시지.

할머니 자아 이제 안싸울래! 봐라. 길남아 난 간다.

길남이 할머니 저 꽃병하구 촛대하구 인형병정 가지고 가세요.

할머니 그건 벨 가져가지. 갈자 거라. (창으로 나간다)

길남이 아 조것들 아주 웃고들 마주 보네. 어디 자는척하구서 조것들 노는 것을 볼가.

★북성당 소년 소녀 문고★

모오구리의 모험

작은돌 번안·김의환 그림
전편·후편·합본 값 350원

신라의 별

이성표 지음·정현웅 그림
김 유신 장군의 이야기!
값 250원

소년 탐정 에밀

심은정 번안·김의환 그림
대통령소설! 값 320원

위인들의 한평생

김소천 엮음·김의환 그림
처음 나온 세계 위인전!
값 280원

총판매★문 장 각

(침대에 누워서 자는척한다)
고양이 (눈을 귀엽게 흘키면서)
야아웅.

바둑이 (빙긋이 웃으면서) 멍 멍
조계.

고양이 야아웅. (뛰어 나와서)
바둑아 아이 배기 싫어.

바둑이 (천천히 나오며) 요 잠장
이야, 왜 내가 피기 싫어.

고양이 피기 싫지 머.

바둑이 애 잠장아 찰 달이 펍
! 밥구나.

고양이 달이 밝으니 어때.

바둑이 아이 요 걱정아.

조렇게 이쁘게.

고양이 그런데 너 왜 날
못먹겠다구 그랬냐?

바둑어 넌 왜 날?

고양이 능글맞게 눈깔을
흘키니깐 그랬지.

바둑이 난 네 눈깔이 암
상스러 미워했지.

고양이 그잔 애기 고만
두고 우리 달밝은 저
밖에 나가 놀가?

바둑이 그래 나가 놀자.

병 정 나두 같이 나가자.
시 꺾 짜워라, 짜워라.

고양이 왜 짜워, 왜 짜워.

바둑이 멋 하러 짜워.

시 꺾 심심하다. 짜워라, 짜워
라.

병 정 시끄럽다.

고양이 자아 나가자.]

바둑이 나가자.

병 정 내가 앞장을 스마. (두
빅 두빅 걸어서 밖으로 나가는
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아

달도 밝다. 자아 나가자. (입
으로 나팔을 불면서 나간다)

바둑이와 고양이 인형병정을
따라 나가며 노래한다.

길남이 (일어나서) 나도 나가자
나도 나가자. (여럿을 따라 나
간다)

노 래

달도 밝고 별도 밝다
놀이 좋구나.



밖에 나가 노래하며
기쁘게 놀자.

달도 밝고 별도 밝다
명랑하구나.

밖에 나가 춤을 추며
기쁘게 놀자.

시 꺾 아, 심심하다.]

시계가 멍 멍 여섯 점을 치면
서 방이 어두어졌다가 다시 밝

아진다.

처음과 같이 인형병정과 바둑
이와 고양이들은 모두 제 자리
에 있고, 길남이는 침대에서 자
고 있다.

등에 할머니가 들어온다.]

할머니 길남이 아직 자니?

길남이 (일어앉으며) 수동이 할
머니세요?

할머니 몸이 좀 어땡냐?

길남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머니 병이 나왔구나. 아유 좋

아라 오늘이 설날이다.

어서 일어나서 우리 수동
이하구 새옷 입구 세배
대너라.

길남이 아유 좋은 설날.]

(침대에서 내려가서 바둑
이와 고양이를 그림을 보고)
바둑아 나비야 잘 잤니?
오늘은 너희들도 새옷
입고 세배 대너야지.

할머니 호호호호호. 나비
하구 바둑이도 마주 보고
세배하지.

막이 꼬요히 내린다.]

박 태원 선생 지은 역사소설

이 순신 장군

일찍이 "소학생"에 연재되
어 독자의 감격을 자아내던
우리 민족의 자랑 이 충무공
의 이야기입니다.

(책값 320원)

아 협 발행

☆ 동 화 ☆

나그네 구름

동 원
그림·김 의 환

우물 물을 길어 세수를 한 소녀는 그 세숫물을 꽃밭에다 끼얹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귀여운 소녀 정이의 얼굴을 씻어준 세숫물은, 여름 햇볕에 쬐여서 수증기로 변해지고, 공중에 올라가서는 하얀구름중이가 되어 바람을 따라 먼곳으로 헤매어다니면서도 항상 정이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였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여러 분에게도 들려 드린 일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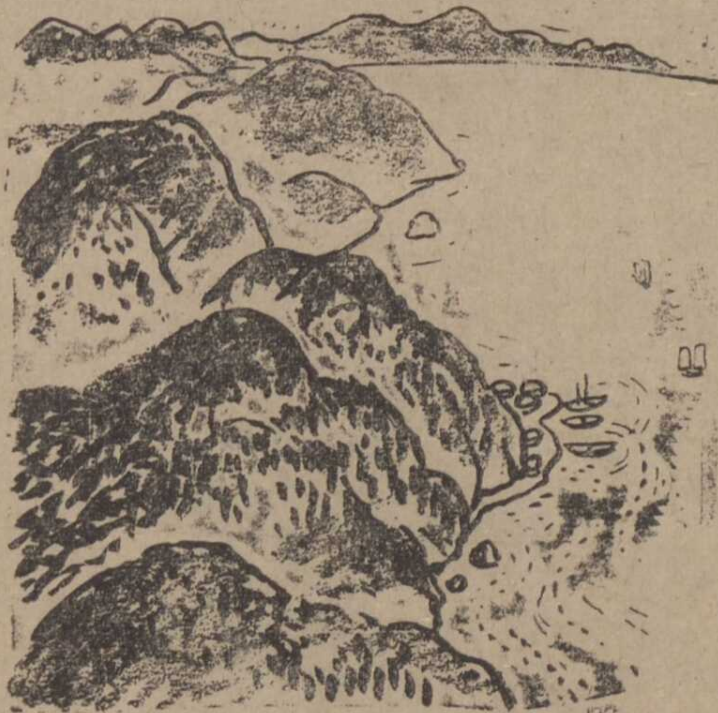
어느 날 밤, 바람은 정이 생각만 하고있는 구름을 데리고 정이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산에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바람과 구름은 서울 서 몇 백 리를 떨어진 강원도 땅, 하늘 높이 늘어서서 버티고 있는 태백산맥에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던 곳과는 경치나 공기가 전혀 다릅니다.

푸른 버들 심은 논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여기도 밭, 저기도 밭.....옥수수,서죽,콩..... 이런 것들만 보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도 있긴 하나



집이라고는 드문드문 몇채씩 흩어져 있는 것이 보기에 쓸쓸하였습니다.

저 높은 산줄기를 채어 넘으면, 동해바다가 보일 것이라고

높스나 높은 산악 지대입니다. 밭이나 동네나 모두 높은 곳에 있으므로 전에 보

바람이 구름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동해 바다! 푸르고 푸른 동해 바다! 그것이 이 높은 산맥을, 이 태백산맥의 등이라고 하는 태백산맥을 넘어서면 눈 앞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기회만 있으면 이 산줄기를 넘어가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구름과 바람은, 지붕에 기와나 짚을 쓰지 않고, 납작납작한 판자 같은 돌로 덮은 인가 근처에서 그날 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태백 산맥의 밤이 새이고 아침 해가 높은 산 머리에서 붉은 빛을 화살처럼 퍼칠 때, 바람은 구름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 갔습니다.

나무가 울창한 산골짜기를 지나 한참을 오르니까 병풍 같이 둘러선 산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아아, 넓으나 넓은 바다가 저 먼 하늘가에 서부터 발아래까지 펼쳐 있지 않겠습니까?

다치 이 커다란 산맥이 이 동쪽에 외서는 바다 위에 절벽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아래 까마아득한 해안선과 바다! 자세히 내려다 보면 멀리 강릉 주문진들의 동네도 보입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바람은 이 절벽 같이 된 산맥 위로 서늘한 기운을 몰아 불어옵니다. 구름은 동해 바다에서 달려 오는 바람에게 밀리어 동쪽으로 더 갈 수 없게 되어 뒷걸음을 칠 지경입니다.

정이의 구름을 데리고 다니는 바람은 구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 가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가서 재미 있는 구경이나 싫건하고 놀자. 밤이 되면 바다 바람도 좀 방향이 바뀔 테니까, 그 때 저 바다를 건너가 보자.”

그러나 구름은 바람을 따라다니기가 싫어했습니다. 재미 있는 구경도 싫었습니다.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생활은 아무리 호화스러워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그만 이 높은 산을 넘

어 대천 땅을 떠나려는 바람과 작별을 하려고 결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떨어져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은 비가 되기 전에는 바람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귀여워 해 주고 사랑해 주던 바람을 이별하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떠나 다니다가는 정이를 찾아가기는 커녕 그리워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할 것을 생각할 때 우선 바람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찬 기운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름은 제 몸을 차거운 공기였다 내 말했습니다. 구름은 조그만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푹 푹 떨어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정이의 구름은 기

어이 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정이의 구름이 비가 되어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자,

“구름아, 구름아.”

하고 놀란 듯 불렀습니다.]

“바람님, 잘 가세요.”

빗방울은 부우영계 싹뿔짜기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무를 잃어버린 바람은 산머리에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빗방울들을 맥없이 바라보고 있더니 한참 후 바다에서 날아온 구름을 만나, 같이 저 편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

비가 된 정이의 구름은 바윗돌에, 나뭇가지에, 스며들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골짜기나 개울로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만 떠다니던 구름은 이제부터 험한 바윗돌 사이로 뛰며 굴며 가야 하였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나중엔 길이 들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물은 낮이나 밤이나 줄달음을 쉰다.

머칠을 두고 바람 틈을 이리저리 돌아 흐르다가 폭포를 만나면 높이나 높은 데서 뛰어 내리게 됩니다.

눈이 피임 돌리고 아찔해져서 물은 두눈을 꼭 감고, 될 때도 있습니다.

정이의 물이 어느 폭포를 뛰어 내려 깊은 웅덩이에서 빙빙 돌며 고단한 몸을 쉬고 있을 때입니다.



숫장수 한 사람이 물가에 와서 지게를 벗어 놓고 두 손으로 폭포물을 움켜 떠서 국을 추겼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 폭포 물이 약수라고 옛부터 전해오는데, 어디 순돌이 약으로 좀 먹여 볼가?”

하며, 허리에 찬 표주박으로 만든 물병에다 폭포 물을 떠 담았습니다.

정이의 물은 그 숫장수의 표주박 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동안 흔들리다가 숫장수 접엘 왔습니다.

“순돌아, 이 물 좀 마셔 봐라.”

하며, 양재기 같은 그릇에 물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약예요?”

“이건 좋은 약수란다. 이거라도 먹으면 얼른 나아 일어날는지 아니?”

순돌이는 그릇에 담긴 물을 한모금 마시고 다시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정이의 물은 마짜 마른 순돌이를 바라 보았습니다. 두손 뭉쓸 병을 앞기에 여러문 살 밖에 안된 순돌이가 저다지 추척해졌을가.

“아버지 언제 다 나아?”

“곧 낫겠지.”

“아버지 사랑 샀어?”

사랑을 사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숫 한 짐 판 돈으로 쌀을 사고 나니 남는게 없어 사랑을 사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 앓는데 사랑은 해롭단다. 이담에 사주게.”



★ 이담부터 세계에서 유명한 작품의 삽화를 하나씩 ★
플라 소개하겠습니다

잉글랜드사람 조나산·스위프가 지은 “걸리버의 여행”은 워낙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그만 사람의 나라 이야기”는 세계 어린이들에게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그만 사람의 나라가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자, 걸리버가 나서서 가택이를 벌리고 서서, 군대들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걸리버는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니 얼마나 조그만 사람들인가 대보십시오.



이 우굴우굴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장티브스의 병균들입니다. 그 병균들로 해서 순돌이는 38도 39도 까지 열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균만이 아닙니다. 뱃속에는 거위들이 우굴우굴 하였습니다. 순돌이가 먹는 음식의 양분이 순돌이의 피가 되고 살이 되려고 하면 이 거위들이 채빨리 그 양분을 빨아 먹어 버리는 것이었습니

순돌이는 섭섭한 얼굴을 하고 있더니

“아버지, 물 물.”

하며, 물을 찾았습니다.

순돌이는 정이의 물을 마셨습니다. 마시고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였습니다.

순돌이는 열이 몹시 높았기 때문에 자주 물만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의 뱃속엔 들어간 물은 그 목구멍에서 뱃속까지가 어떻게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끓는 가마솥 속 같았습니다.

순돌이는 열이 높아 헛 소리를 하였습니다.

“음내 학교 안 갈테야. 물, 물……”

“순돌이는 자주 물을 찾았습니다.

“물 그만 먹어라. 너무 많이 마시면 해롭다.”

밖에서 미음을 끄리고 있던 어머니가 물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정이의 물은 순돌이의 몸 속에서 가만히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순돌이의 뱃속 창자에는 병균

다.

그래서 순돌이는 야위고 거위들은 살이 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열이 심하니까 거위들도 녀워서 못견뎛니다.

“아, 뜨겁다. 못견뎛겠다.”

하며 어떤 놈은 밖으로 뛰어 나가려는 놈도 있습니다.

정이의 물은 순돌이의 뱃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땀이 되어 온몸에 배어 나옵니다. 오줌에 섞여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물은 다시 수증기가 되어 떠올랐습니다. 가엾은



갈갈박사

○역사 시간

선생님 “남종을 죽인 사람이 누

구냐? 수남이.”

한눈 팔고 있던 수남이는 벌떡 일어서더니

수남이 “에 저는 죽이지 않았습
니다.”

선생님 ??? (서울 정제교 유
준학)

○ 이

복동이 “복남아 애들은 이가 빠
지면 또 나는데, 어른은 한번
빠지면 왜 안나는지 아니?
복남이 “몰라.”

복동이 “것두 몰라. 어른은 금니
를 박으라고 안나는 거야.”

복남이 ??? (서울 정제교 권
재후)



순돌이를 두고 공중으로 올라간 수증기는 높은 데서 다시 구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꿈 같았습니다.

저 아래 아득하니 보이는 산 기슭 오막살이 집에 순돌이가

지금도 앉고 있다, 생각하며 어서 나아 일어나기를 마음 속에 빌면서 정이의 구름은 사족으로 가는 바람을 따라 정처 없이 산을 넘어 들을 지나 먼 하늘을 뚝뚝 떠났습니다.

고생을 이긴 이야기

가난을 이기고, 또는 병을 이기고, 혹은 어려운 일을 용기를 내어 이긴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의 이야기도 좋고 남의 이야기도 좋으니 1,000자 이내로 적어보내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야 하며, 잘된 것은 "소학생"에 발표하고 상도 드립니다. (편집부)

소 학생
쿠우 폰 표
No. 4

"쿠우폰표"는 잘 모아두었다가 12장이 되거든을 12월에 보내십시오.

소 학생
독자 증
4월 치

"애독자상타기"에 올려볼여 보내십시오.

▲벌써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가고 봄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 그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소년상식문답”에 관해서 저는 모르는 상식문을엽서로 써보내고 싶은데 좋습니다?

(서울 쌍림동 276 김 용근)

△ 좋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금도 사양치 마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 기자 여러 선생님 한마디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척척박사께서 질문에 대답 못하면 어떡합니까? 궁금하니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원 일구 이 인식)

△ 질문에 대답이 막힌다니, 그러면 이름부터 벌써 척척박사가 아니게요. (기자)

▲ 여러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몇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증”이나 “쿠우폰표”를 따로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으려내면 뒷장의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책이 상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상타기 발표는 응모자 수와 맞춘 사람 수를 알려주시면 되고 답겠어요. 끝으로 재미있는 단

편소설을 많이 실려 주십시오. 너무 무리한 칭 같으나 애독자들이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정 만월교 송 형찬)

△ 좋은 의견입니다. “독자증”과 “쿠우폰표”는 될수 있는 대로 뒷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아협 상타기 상을 보내 드렸는데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온 것이 있습니다. 12월치에 발표된 서 정윤군 (중앙교), 한상연군 (광희동)대 칠성군 (안암동)과, 1월치에 발표된 김 동숙군 (이황교)방 원규군 (돈암동)은 곧, “아협”으로 상을 받으려 오시기 바랍니다.

○ “하얀쪽배”가 영화로 된답니다. 일찌기 소학생에 연재되어 독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가슴을 조이게하던 정 인택 선생님의 장편소설 “하얀쪽배”를 이번에



영화로 박이기 시작했답니다. 어서 어서 보고싶지요.

○ 작품이나 여러가지 무고물 보내시는데 이름을 걸봉에만 쓰실 것이 아니라 속종이에도 써주세요. 부디 부디.



★ 더욱 더욱 재미 있어가는 “이름 없는 별들”과 “채석장의 소년” 다음 치가 궁금 합니다. 이달치부터 “즐거운 한 때” 화보가 없어서 섭섭하실 줄 압니다. 이번에 빠진 선생님들은 요다음 기회에 모시기로 되었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 미그 대신 여러분과 함께 “사

진 세계 일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찰속이나 거리에서 꽃을 꺾어들고 다니는 사람을 가끔 볼수 있습니다. 물론 똑똑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여러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들에 나갔다가 그 고운 꽃이 탐나서 한 가지라도 꺾으려는 동무가 있거든, 서로서로 말리세요. 그러지 않아도 산에 나무가 없어서 야단인데 꽃가지를 함부로 꺾어서야 쓰겠습니까? (심 은정)

4283年 4月 1日 發行
소 학생 · 값 150 원
4월 치*제 77 호
 發行人 尹 石 重
 印刷人 金 關 斌
 發行所 兒 協
 4283年 9月 30日 發售 第248號
 서울 鍾路 2街 82 永源빌딩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82
 振替 서울 2706番
 電話 0328番
 出稼 3970番
 支店 3492番
 支店 0187番

서울신문社 印刷局
 4283年 9月 31日 發售 第74號



저절로 공부가 잘되는

소학생 연습장

서울 학습 지도회 엮음 * 아협 발행

남보다 지지 않게, 남보다 뛰어나게, 부끄럽히, 차근차근, 고생 않고, 실수 없이, 공부를 잘 하여 성적을 올립시다. / 다 같이 우등생이 됩시다. / 학급을 빛내고, 학교를 빛내고, 민족을 빛냅시다. /

이 연습장이 바로 여기 필요한 책입니다. /

제2학기치 총연습 6년치 350원
5년치 220원
4년치 220원 ☆전국 발매중☆

입학
준비

50회 완성

중학교 입학이 막대한 여러분! 이 책은 시작하여 50일 뒤 모든 학과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가 되는 책입니다. 더도 말고 하루 한 번씩만 충실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놓고 윗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값·300원

중학교
들기 위한 **소년상식** 3,000문답집

이 책을 아직 못 가진 분이 계십니까? 또 다 팔리기 전에 어서 구하십시오.

글벗집 엮음★수정 제3판 발매중★값은 500원

아협 발행 · 文章閣 發賣 (전국 서점마다 팔고 있습니다)